

2003학년도

석사학위(Th. M) 청구논문

예정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성화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정 영 석

예정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성화론

지도교수 서 철 원

이 논문을 석사학위(Th. M)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22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정 영 석

정영석의 석사 학위(Th. M)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서 철 원 (인) 

심사위원 최 홍 석 (인) 

심사위원 김 광 열 (인) 

2003년 12월 22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감사의 글

어쩌면 이 논문은 성화되지 못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인 줄 모른다. 14살 어린 나이에 삶의 무상을 느끼고 자살까지 시도한 소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스스로 기대해보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성화되지 못한 자신을 새롭게 깨달을 뿐이다. 운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부끄러움에 매 순간을 괴로워하는 못한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논문을 쓰면서 나는 자신의 실상을 보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아울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윤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실 부목사가 공부한다는 것은 한국교회 현실에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부재(不在)가 삶의 부재(不在)를 가져옴을 절실히 느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자 감히 허락을 구했을 때, 흔쾌히 허락하시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목사가 되기 전에 참다운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교역자 회의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하셨던 김윤배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큰 귀감(龜鑑)이 되었다.

수업시간을 통해서도 바른 신학의 원리를 배웠지만, 논문을 지도하실 때마다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셨던 서철원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논문 심사 때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신 최홍석 교수님과 김광열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논문이 있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돌봐주신 아버님, 어머님,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논문 때문에 많은 짜증을 부리고, 남편노릇도 제대로 못한 나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묵묵히 격려하며 힘을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언제나 '아빠가 최고야!' 하면서 힘을 주었던 사랑하는 두 아들 의빈과 다빈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3년 12월 22일

정영석

목 차

국문요약	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5
제2장. 칼빈의 예정론의 성화론적 의미	9
제1절. 실천적 진리 체계인 칼빈의 예정론	10
제2절. 예정의 목적	20
제3절. 예정론에 대한 오해들	25
(1).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오해	26
(2). 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한다는 오해	28
(3). 하나님이 편파적이 된다는 오해	31
(4).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적으로 말살한다는 오해	34
(5).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오해	36
제4절. 성화를 이루는 예정론의 실천적 효과들	40
(1).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	40
(2). 구원의 확신을 심어 준다.	42
(3). 겸손하게 한다.	44
(4). 더욱 힘써 성화의 길을 걷게 한다.	45
(5). 실제적 위로를 제공해 준다.	47
제5절. 예정 안의 구원의 단계들과 성화의 내적 연관성	49
(1). 칭의와 성화의 관계	52
(2). 믿음과 성화의 관계	54
(3). 회개와 성화의 관계	56

제3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 -----	58
제1절. 신학적 제시 -----	58
제2절. 주석적 제시 -----	64
제4장. 예정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성화론 -----	75
제1절. 칼빈의 성화론 고찰 -----	75
제2절. 칼빈 성화론의 특징 -----	79
(1). 하나님 은혜중심의 성화론 -----	79
(2). 일평생 계속되는 점진적 성화론 -----	81
(3).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론 -----	83
제3절. 성화의 이유 -----	85
(1).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	87
(2). 성령의 감화에 하나님의 거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	88
제4절. 성화의 과정 -----	91
(1) 회개: 옛 사람을 죽임과 새 사람을 살림 -----	92
(2). 기도 -----	94
(3). 말씀 -----	99
(4). 고난을 통하여 악을 버림 -----	101
제5장. 성화의 목적 -----	104
제6장. 결론 -----	107
참고 문헌 -----	112
ABSTRACT -----	116

예정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성화론

성화(聖化)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정(豫定)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해 있는 것으로 예정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정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정론(豫定論)은 성화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풀 수 없는 진리이다. 마찬가지로 성화론 역시 예정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정론이 지니는 신앙 윤리적 함축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성화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기도 하며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관련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이다. 신자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과 교회들의 세속화가 교회의 영적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교회사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은 오늘날 우려되는 신자와 교회의 세속화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은 예정에 대한 오해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 (1).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 (2).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한다.

(3).하나님이 편파적이 된다.

(4).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적으로 말살한다.

(5).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사실 이러한 오해들은 예정을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철학적인 사변으로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예정을宿命론으로 오해하면, 인간이 스스로 택자(擇者)와 불택자(不擇者)를 가정해서 인생을 포기하기 쉽다.宿命론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宿命론과 예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宿命론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정론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宿命론은 물리적 필연성과 구별 지을 수 없는 하나의 맹목적이며 무지한 그리고 비인격적이며 무도덕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정론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면 매우 실천적인 교리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예정 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며, 구원의 확신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고 실제적 위로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칼빈은 예정의 목적이 성화에 있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근면함을 심어 준다고 하였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칼빈은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예정의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당시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쳤다. 또한 칼빈은 예정 안에 구원의 단계들이 있음을 말하며, 이것들이 성화와 내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구원의 단계들을 신학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칼빈은 이를 성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칼빈은 성화의 이유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

명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성령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때라고 말하였다. 이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화의 과정으로 회개, 기도, 말씀 그리고 고난을 언급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일평생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림으로 성화의 길을 걷는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옛 사람을 죽이고 육의 생활 체계를 끊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결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내의 말씀의 직무가 교회의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되고 동시에 신자의 성화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요 기능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성도의 고난이 성화의 과정임을 밝혔다. 그는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자기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칼빈은 성화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이르는 것을 성화의 목적으로 보았음이 분명하다.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거소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는 결국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이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충만한 거소가 되는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연합이다. 칼빈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본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시작한다. 칼빈은 엡 1:4-5절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연결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는 우리가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 거룩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칼빈의 성화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중심의 성화론'이고, '일평생 계속되는 점진적인 성화론'이며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론'이다. 여기에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화의 실제적인 원리를 말함으로 성경적 바른 성화론을 완성하였다. 그는 모든 논증을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에 의해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성화론을 개진(開進)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인간의 타락,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회복 등 균형 있는 신학의 체계 아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관점으로 성화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보다 성경적인 성화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칼빈의 성화론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더군다나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화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하였다. 기껏해야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권면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성화에 대한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회에 거룩함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성화의 길을 걷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하였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칼빈의 성화론을 가르쳐야 한다.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바른 교리가 세워지고 그 교리가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바로 가르쳐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¹⁾ 이러한 고도의 성장 가도에서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등을 통하여 성도들을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키는데 열심히 매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교회는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세워져 가는데, 삶의 현장에서의 기독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교회의 수(數)는 많아지고 성도의 수(數)도 많아졌지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와 참다운 성도다운 성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만큼 부패해 있다.²⁾ 교회에서 드러지는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거룩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삶의 현장에 있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퇴보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교회는 건물 안에서는 교회였지 건물 밖

1) 한국교회의 교인 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에는 그 숫자가 500,198명이었지만 1960년에는 623,072명으로 10년간 24.6%가 증가했고, 1970년에는 3,192,621명으로 10년간 무려 412.4%나 증가했다. 1970년에서 1977(5,001,491명)년 사이의 7년간에는 56.7%가 증가했고, 1977년에서 1985년(6,489,282명) 사이의 8년 동안에는 교인의 숫자가 29.7% 증가했다. 1985년과 1991년(8,037,464명) 사이에는 6년간 23.9% 증가했다. 그러나 1991년에서 1995년(8,760,336) 사이에는 4년간 그 증가율이 9.0%로 급격히 낮아졌다. 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1998), p. 57 참조.

2) 한완상,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4), p. 34.

에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로 전락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부재(不在)가 한국교회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본회퍼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켰다고 비난하였다.³⁾ 그는 순종과 행함이 없는 ‘싸구려 신앙’을 비판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값비싼 삶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 비난의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받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되지 못한 삶’이 이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수(數)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만연해 있는 실용주의 철학을 받아들여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된 구원의 기쁨과 거룩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교회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속적인 성장에만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리보다는 교회 성장을, 성도의 영적 양육보다는 즐겁게 해주는 일을, 진리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윤리 부재, 도덕 불감증 시대라는 말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에 있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배어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은 우리를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만든다. 특히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상당수(相當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존 맥아더는 세상을 닮아가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였는데,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우리 사회의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고 있다. 세속적 태도와 방종한 태도가 교회의 심장을 먹

3) 본회퍼, 『나를 따르라』 허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p. 31.

어 치우고 있다. 오늘날 종종 선포되는 복음은 어찌나 뒤엎혀 있던 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만족과 번영에 이르는 수단으로밖에 제시하지 않는다.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십자가의 거치게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제거되었다.⁴⁾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가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진리가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성화(聖化, sanctification)의 내용들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의 삶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시대의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수(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냐 하는 정체성(Identity)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 시대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기독교적 가치가 조롱당하며, 폭력과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자체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⁵⁾ 이런 시대적 상황을 직시할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성화’이다. 성화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영성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오늘날의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성화(聖化, sanctification)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정(豫定, predestination)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해 있는 것으로 예정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

4) 존 맥아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pp. 118-119.

5) 찰스 콜슨·낸시 피어시,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영만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p. 10.

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정의 목적이 ‘성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바로 성도의 성화에 있다. 그렇다면 예정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분명이다. 그러므로 예정론(豫定論)은 성화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풀 수 없는 진리이다. 마찬가지로 성화론(聖化論) 역시 예정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정에 대해 오해함으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예정을 성화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하여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마 5:13-14)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빛을 잃어 더 이상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 짠맛을 내지 못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화까지 잘못된 이해를 가진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즉,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정론이 지니는 신앙 윤리적 함축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성화에

6) 엡 1:4-5절 외에도 다음의 성경구절을 통해 우리는 성화가 예정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벧전 1:2),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롬 8:29)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4)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기도 하며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관련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화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며 성도들에게 성화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하였다. 기껏해야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권면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성화에 대한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거룩함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화’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신학의 부재가 삶의 부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예정의 관점에서 본 칼빈(Calvin)의 성화론(聖化論)을 연구하여 성화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관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성도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과 교회들의 세속화가 교회의 영적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교회사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은 오늘날 우려되는 성도와 교회의 세속화를 반성(反省)하고 개선(改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서에는 성화의 교리에 대한 진술이 거의 없다. 어거스틴(Augustine)이 성화의 개념을 최초로 발전시킨 사람이었는데, 이는 펠라기우스(pelagius)와의 논쟁의 역할이 컸다. 펠라기우스는 성화를 죄인 자신

7) Louis Berkhof, 『조직신학』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9), p. 294.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에 나타난 성화에 대한 교리의 틀을 마련한 교부였다.

의 자연적인 힘에 진리의 감화(感化)가 합세하여 일어나는 삶과 습관들의 도덕적 개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⁸⁾ 그러나 어거스틴은 사람의 성질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화를 신적 생명의 새로운 초자연적 부여(附與)로 생각하였다. 그는 칭의와 성화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았지만, 후자가 전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⁹⁾ 종교개혁자 루터(Luther)는 무조건적인 은총의 결과로서의 성화를 강조함으로 “ 믿음으로만(Sola Fide)”의 원리 속에서 성화를 찾았다. 그에 의하면, 성화란 칭의와 구별되어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성화란 칭의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¹⁰⁾ 칼빈(Calvin)에 와서야 비로소 성화의 관념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그리스도와의 연합(聯合)의 결과로 연결하여 성경적인 성화론을 이루는데 선구자(先驅者)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칼빈의 저술(著述)들을 중심으로 칼빈 자신이 어떻게 성화를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의 신학체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논자는 개혁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8) Ibid, 133.

9) Ibid, 295.

10) 김광열, 『구원과 성화』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pp. 99-100.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존재라는 것이다. 이처럼 루터는 칭의 아래서 성화를 다룬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교회 안에서 제시되는 성화관들이 ‘Sola Fide’의 성화관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김광열 교수는 지적한다. 왜냐하면 경건주의 루터교 신학자들의 가르침들 속에서 또 다른 2번째 방식의 루터교의 성화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루터에 의해 칭의의 영역에서 강조하였던 가르침을, 성화의 영역에서의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려 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김광열, 『구원과 성화』, pp. 106-109를 보라.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칼빈의 성화론을 연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¹¹⁾ 물론 이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연구도 고찰하여 참고하였다. 단순히 성화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관점에서 칼빈의 성화론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방향이다. 칼빈의 성화론을 예정의 관점에서 살피는 이유는 성화가 구원론의 한 부분으로 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경우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필연적으로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서론에서는 한국교회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화되지 못한 성도들의 심각성을 문제 제기하였고, 이에 본 논문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하였다.

본론을 시작하는 2장에서는 먼저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하여 예정론의 오해들을 살펴보면서,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예정론의 실천적인 면들을 논하면서 예정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정의 목적과 예정에 속한 구원의 단계들과 성화의 내적 연관성을 살핌으로 예정과 성화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예정이 성화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연관 속에 성도들의 성화를 돕는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본 논문이 예정론에 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예정의 목적이 성화에 있으며, 예정 안에서의 구원의 단계들과 성화가 내적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11)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II. xxi. 1. ed. John T. McNEILL,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ume XX*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초판(1536년 3월, 바젤), 제2판(1539년 말, 스트라스부르크), 제3판(1543년, 제네바), 제4판(1550년, 제네바) 그리고 최종판(1559년, 제네바)으로 나뉜다. Ford Lewis Battles, 『칼빈의 기독교강요 분석』 양건·강명희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국, 1983) 참고. 물론 여기서는 최종판을 참고자료로 삼았다.

연구 범위를 한정했다.

3장에서는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예정과 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강조한 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가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하여 칼빈의 성화론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칼빈의 성화론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칼빈이 말하는 성화란 무엇이며 그의 성화론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폈고, 우리가 왜 칼빈의 성화론을 예정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증하였다. 성화의 이유와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지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성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논증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예정에 관점에서 본 칼빈의 성화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였다. 특히 칼빈의 성화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칼빈의 성화론을 가르쳐야 작금(昨今)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권면하였다. 성화된 성도가 많아야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거룩함의 상실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논자는 거룩함이 기독교의 능력이며, 다시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原動力)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바른 교리가 세워지고 그 교리가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바로 가르쳐져야 한다.

제2장. 칼빈의 예정론의 성화론적 의미

예정론은 어느 신학자나 교과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 준 진리이다. 예정론은 이미 어거스틴(Augustine)에 의해서 1,000년 전에 가르쳤던 교리이다. 루터(Luther), 츠빙글리(Zwingli), 마틴 부처(Martin Bucer), 그리고 칼빈(Calvin) 등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예정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가르친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었다. 칼빈은 자신이 저서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에서¹²⁾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정론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이끌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이 교리에 대하여 일언반구(一言半句)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¹³⁾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겸손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며, 인간의 지혜를 규율하는 원리라고 했다.¹⁴⁾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정론이란 주제가 유한(有限)한 인간이 무한(無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헛된 호기심(好奇心)이나 상상(想像)으로 접근하여 이해한다면 깊은 어두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칼빈은 예정론을 탐구할 때의 바른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고 있다.

예정론을 탐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태연하고 자신 만만하게 이 곳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미로(迷路) 속에 들어가 빠져나올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깊이 감추어

12) 칼빈이 직접 쓴 이 글은 알베르트 파기우스(Albert Pighius)와 시실리의 게오르기우스(Georgius of Sicily)의 잘못된 예정에 관한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 쓴 논문이다. 칼빈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의 이성적 추리를 과신하려는 자라고 말하면서, 비록 그들의 시도(試圖)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존 칼빈, 『칼빈의 예정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2), pp. 84-84.

13) Ibid. p. 86.

14) Ibid.

두기로 정하신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탐색하거나, 가장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영원 자체로부터 풀어내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의 비밀의 뜻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다.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신 범위 내에서 계시하시로 결정하신 것이다.¹⁵⁾

이처럼 칼빈은 겸손과 경외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만을 알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정론을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성경이 인도하는 곳까지만 갔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서는 머물렀다. 칼빈이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예정에 대한 진리를 주장했다면, 그가 주장하는 예정론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제1절. 실천적 진리 체계인 칼빈의 예정론

칼빈은 자신의 역작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의 신학을 배열할 때, 예정론의 공식적인 논의를 '신론'에서 하지 않고 '구원론'에서 하며, 구원론에서도 그 중요 골자가 밝혀지기까지 미루었다. 그는 3권 21-24장에서야 비로써 예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처럼 칼빈은 예정론을 기독교인의 구원의 삶에 대한 논의 뒤에 배치시켰다. 이것은 예정론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결론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¹⁶⁾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포함된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

15) Institutes, III. xxi. 1.

16) 존 레이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p. 128.

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리이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인 것으로서 유한(有限)한 피조물과는 아무런 조건이나 관계됨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의한 영원한 신적인 목적에서만 기원(起源)한 것이다(엡 1:4-5). 이와 같은 작정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운행(運行)하시며(욥 28:4-7), 인간 세상에서 진행되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모든 역사 과정을 주관하시며(행 13:17-23), 온 세상 인간 개개인의 전 생애를 인도하시며(전 3:10-14) 천사와 마귀는 물론 모든 영계(靈界)에 이르기까지의 피조계에 속한 전 우주를 미리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다(사 14:26-27). 그러나 예정은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한 작정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말한다.¹⁷⁾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다.¹⁸⁾ 어떤 사람은 구원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칼빈의 이중 예정론(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부른다. 칼빈은 ‘선택만 있고 정죄는 없다’는 주장을 반대하면서,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표준으로 측량을 못하며,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감춰진 뜻에 있다(롬 9:19-23; 1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하여 숨은 결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경외로 공손하게 찬탄해야 한다고 칼빈은 권면한다.²⁰⁾

이러한 칼빈의 예정 교리는 선택받은 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구원을

17) 서철원, 『신론(神論)』 (서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95), p. 82.

18)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II. xxi. 1. ed. John T. McNEILL,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ume XX*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19) *Institutes*, III. xxiii. 3.

20) *Institutes*, III. xxiii. 5.

이루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확신을 주기 위한 진리이다. 칼빈이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인간의 거룩함 삶’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위대한 **실천적 진리 체계**이다. 그런데 칼빈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정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많은 오해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예정론을宿命론(운명론)으로 혼동하여 예정을宿命(운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²¹⁾

예정을宿命론으로 오해하면, 인간이 스스로 택자와 불택자를 가정해서 인생을 포기하기 쉽다.宿命론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宿命론과 예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宿命론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정론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宿命론은 물리적 필연성과 구별 지을 수 없는 하나의 맹목적이며 무지한 그리고 비인격적이며 무도덕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²²⁾ 찰스 핫지(Charles Hodge)가 말한 것과 같이 칼빈의 예정론(predestination)과宿命론(fatalism)은 오직 한 점에서만 일치된다. 그는 예정론과宿命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

21) 예정의 문제를 결정론적으로 이해한 마호메트교들은 신앙이宿命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근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가난도 저들이 믿는 알라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진국을 면치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가宿命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화가 있다. 예정론자와宿命론자가 한배를 타고 항해를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宿命론자는 “저 사람이 살 운명이면 살아 날것이기 때문에 건져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예정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배에 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건지라고 예정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건져 주었다. 이때 팔짱을 끼고 있던宿命론자는 보란 듯이 그 사람이 살 운명이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宿命론자의 행동이다.

22) 로레인 뵈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홍의표·김남식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90), p. 235.

했다. “양자가 만사의 결과에 절대적 확정이 있는 줄로 생각함이다. 그러나 양자가 그 확실성의 근거(ground), 확실성을 확보하는 세력의 성질(the nature of the influence), 예기된 목적들(ends), 또는 그 확실성이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미치는 영향(effects)에 있어서는 서로 같지 않다.”²³⁾

이처럼 예정론 안에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고스란히 보존된다. 반면宿命론은 인간의 자유선택 및 결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행동 역시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필연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宿命론의 주장처럼 불가항력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추상적 능력을 인간행동의 원인으로 보면, 자유의지를 조건으로 하는 도덕적 책임은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²⁴⁾宿命론이 진리라면 인간에게는 종교, 사랑, 자비, 공의, 지혜 등을 추구할 동기가 없어질 테지만, 예정론은 오히려 인간에게 이런 덕행을 사모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²⁵⁾ 해밀톤(Hamilton)은 “예정론은 단지 외부적으로만 이교의宿命론과 비슷해 보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냉혹하고 비인격적인 운명의 수중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자비하고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장중에 붙잡혀있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 예정이宿命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과 이교적宿命론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예정론을 시작할 때부터 예정론의 필요성과 그 유익을 역설하였다. 그는 예정 교리를 알아야 만이 우리의 구원의 출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출처에서 흘러나오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또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²⁷⁾ 이는 예정 교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유익에 꼭

23)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3 vols. (London: Thomas Nelson, 1872), p. 548.

24) 로레인 뵈트너, p. 236.

25) Ibid.

26) Ibid, p. 237.

27) Institutes, III. xxi. 1.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롬 11:5-6). 칼빈은 이 예정 교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으며, 인간의 ‘진정한 겸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²⁸⁾ 이처럼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리이다.

칼빈은 예정론의 필요성과 그 유익을 3가지로 말한다. 즉, 예정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다.²⁹⁾ 이 예정 교리 이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없다. 또한 우리가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 예정 교리에 있다.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라면 또한 그것이 좌절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요 10:28-29).

예정론의 필요성과 그 유익을 말한 칼빈은 예정론의 위험성도 언급하였다. 칼빈은 우리가 예정을 탐구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2가지 잘못된 태도를 지적한다.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경박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예정에 대한 논의는 매우 난해한 문제이므로 지나친 호기심으로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⁰⁾ 두 번째 위험한 태도는 선택의 교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은 예정 교리가 위험하다며 마치 암초를 피하듯 예정 교리를 외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칼

28) Ibid.

29) Ibid.

30) Ibid.

빈은 이들의 침착하고 온건한 태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지적하였다.³¹⁾ 칼빈은 성경말씀이 '성령의 학교'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³²⁾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정에 대해서 밝힌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야한다는 것이 칼빈의 권고이다. 다만 제한조건을 두었는데, 그것은 주께서 입을 여시지 않을 때에는 즉시, 모든 탐구의 길을 닫으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지만, 가르치기를 그치실 때에는 우리도 더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³³⁾

그러면 우리는 예정의 비밀을 어디서 풀 수 있을까? 칼빈은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임금님의 처소를 들여다보게 하는 유일한 안내자를 성경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의 비밀의 뜻을 "성경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신 범위 내에서 계시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의 교리를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의 하나가 "오직 성경"이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가 교황이나 전통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중세의 스콜라주의 신학처럼 성경을 벗어나서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경으로, 성경 안에서 신학의 체계를 세워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31) Institutes, III. xxi. 3.

32) Ibid.

33) Ibid.

우리가 주께 대하여 알아도 좋을 것을 탐구 할 때,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하여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을 비추어주는 빛은 주의 말씀뿐이다. 만일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곧 모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한계를 넘는 순간에 바른 길을 벗어나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거기서 반드시 헤매며 미끄러져 넘어지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 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려는 것이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차라리 자진해서 묻지 않는 것이 좋다.³⁴⁾

칼빈은 이렇게 성경이 알려 주는 것 이외의 것을 묻지 않는 태도를 “**유식한 무식**”이라고 말한다.³⁵⁾ 칼빈의 이 말은 우리가 주께서 비밀로 그대로 두신 것은 탐색해서는 안 되지만, 공개하신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 한편으로 과도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은혜를 모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신다.’는 칼빈의 이중 예정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지(foreknowledge)를 예정(predestination)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기 전에 그에게 있는 가치나, 앞으로 있을 공로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다.³⁶⁾ 이 반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

34) Institutes, III. xxi. 2.

35) Ibid.

36) Institutes, III. xxi. 5. 이에 대한 『기독교 강요』의 각주를 보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반대자들 중에 대표적인 자가 바로 피기우스(Pighius)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피기우스에 대한 반박 논문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에서 피기우스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성격적으로 비판하였다. 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은혜를 멀리

로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예비하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악한 의도와 불경건한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리라고 보시는 사람들을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결정하신다고 주장한다.³⁷⁾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그런 성향이나 능력을 미리 보고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들의 생각대로 예지가 예정의 원인이라면,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절대예정을 강조하는 성경의 증거에 위배(違背)되는 것이다. 예지 예정은 예정론이 운명론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맹점(盲點)을 보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정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기로 결정한 인간들을 선택하신다고 함으로서 선택과 유기의 결정권을 인간에게 넘겨주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와 같은 반대자들의 거짓된 주장이 예정을 예지의 보자기로 덮음으로써 예정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권적인 목적**에서 온다고 논증하였다.³⁸⁾ 칼빈은 예정과 예지를 다 하나님 안에 두었다. 그는 성경의 예를 들어 예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였다. 칼빈은 예정의 대상이 단지 개개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⁹⁾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장래를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의미이다 (신 32:8-9). 그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가 선택의 결과임을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럽게 행하신 것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할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다고 주장한다. 즉,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관계없이 선택이라는 우주적인 유익을 자기들 스스로 버린 것이라는 것이다. 존 칼빈, 『칼빈의 예정론』, p. 74.

37) Institutes, III. xxii. 1.

38) Institutes, III. xxii. 1-6.

39) Institutes, III. xxi. 5.

때문이라고 말하였다(시 105:42).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도 달리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였다(신 4:37).⁴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가치와 공적을 배제한다.

둘째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 집단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임을 주장한다. 그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내에서도 개인적인 선택과 유기가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⁴¹⁾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과 에서이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아서 영적인 계약을 공유하고 있었다(창 17:23). 그러나 이스마엘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으며, 그 다음에는 에서가 단절되었다(창 25:23). 반면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으며,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시 78:67-68).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보호하셔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두셨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들은 그 선택에서 제외시키셨다는 말이다.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등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증거들은 그 은혜를 받을 아무런 가치나 공로가 없는 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값없이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⁴²⁾

이를 통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세 단계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그냥 원래대로 유기된 자들이다. 이는 주로 이방인들이다. 둘째는 외면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부름 받았지만 영원한 선택에 제외된 자들이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중 극소수의 사람인데, 내면적인 부름을 받아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다는 성경의 증거는 매우 흥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는 구원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40) Ibid.

41) Institutes, III. xxi. 6.

42) Ibid.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영적 후손들에게만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다. 칼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일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 줄 사람들을 오래 전에 확정하셨다고 말했다.⁴³⁾ 칼빈은 선택된 사람들에 관하여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매우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공정 무흠하면서도 불가해한 판단으로, 저주에 넘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⁴⁴⁾

칼빈은 선택의 징표를 소명과 칭의로 삼는다. 동시에 유기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알아도 성령에 의한 성화의 길로부터 차단해 버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⁴⁵⁾ 이처럼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 이중 예정론을 천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은 선택의 징표를 소명과 칭의라고 함으로서 개개인에게 예정을 적용할 때 구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암시하였다.

이상의 예정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예정이란 이교도의 속명론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빈의 예정론의 특징은 인간의 철학적 사고와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을 예를 들어 논증함으로써 자신의 이중 예정을 반대하는 자들의 예지 예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면, 예정이란 성화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경적 진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정은 인간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실천적 진리 체계이다. 논자는 오늘날 예정론의 문제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무작위로 적용한데서 발생하

43) Ibid.

44) Institutes, III. xxi. 7.

45) Ibid.

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절. 예정의 목적

공로 예지를 물리친 칼빈은 각 사람에 대한 예정을 성경의 증거를 들어 확인하였다. 칼빈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예로 들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칼빈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할 때, 우리 편에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⁴⁶⁾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된 것은 “창세 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은 공로의 예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후에 아담 안에서 동등한 인간들이 될 사람들을 구별한 조건이 무엇이겠는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었다.”⁴⁷⁾고 분명히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리란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바울이 딤후 1:9과 엡 1:4에서 말하는 순서를 뒤집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⁴⁸⁾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에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를 하시지 않는다. 그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면, 그 선택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닐 것이다. 칼빈은 야곱과 예서의 예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선택의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을

46) Institutes, III. xxii. 2.

47) Institutes, III. xxii. 3.

48) Ibid.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깨끗이 물리쳤다.⁴⁹⁾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유기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칼빈의 논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롬 9:15-18).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공로 에서는 다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선택되었으며, 버림을 받은 에서와 구별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를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자신의 공홀에서만 취하신다는 것이다.⁵⁰⁾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자존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선택하시고 더러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칼빈은 선택의 목적이 ‘택한 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이며,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라고 말한다. 칼빈은 우리가 거룩

49) Institutes, III. xxii. 5.

50) Institutes, III. xxii. 6. 칼빈은 xxii 7-11절에서 선택과 유기의 근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한다.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요 6:37,39, 44-45; 17:6,9 이상의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이 자신을 통하여 은총을 받는다고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의의 선택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이든 유기든 그 모든 원인을 오직 자기 안에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게 되기 위해서 선택되었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다.⁵¹⁾ 그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전 생활에는 어떤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⁵²⁾고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확실히 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주석, 설교들 중에서도 예정의 목적이 성화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주장하였다. 그는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예정의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당시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쳤다.⁵³⁾ 또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주석(살전 4:3,7)⁵⁴⁾과 에베소서 주석(엡 1:4)⁵⁵⁾에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경건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성화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디모데 전서 주석(딤후 4:4,8)에서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곳에 부족한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경건에만 집중해야 한다.”⁵⁶⁾고 더 강하게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칼빈의 주장 이외에도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성화에 있음을 분명히 증거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1) Institutes, III. xxii. 3.

52) Institutes, III. xviii. 2.

53) 장 칼뱅, 『칼뱅의 에베소서 설교(상)』 배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p. 66-68.

54)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and ed. John Owe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1 Thessalonians 4:3,7.

55)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Ephesians 1:4.

56)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1 Timothy 4:4,8.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살전 4:7),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전 1:2),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4).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정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다. 물론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공의의 도가 성취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⁵⁷⁾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예정의 궁극적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성화에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성화에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팩커(J. I. Packer)도

57) 엡 1: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일이며, 우리를 선택하고 구속하신 목적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목적이다.”⁵⁸⁾라고 말함으로써 예정의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주장했다. 물론 예정은 인간의 이성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납득하면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교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어떤 공로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성별되기 위함이다. 우리는 ‘거룩한 삶’에 부르심을 받았다.⁵⁹⁾ 우리는 또한 자유⁶⁰⁾와 화목⁶¹⁾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자유도, 화목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이 그 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게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악이나 불결과는 아무 접촉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의 영광의 가장 특이한 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표는 이것이라고 가르치며, 하나님

58) 제임스 패커, 『성령을 아는 지식』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03), p. 135.

59) 살전 4: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60) 갈 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 ”

61) 고후 5:18 “ …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의 부르심에 응하고자 하면 우리는 항상 이 목표를 주시해야 한다.⁶²⁾

세상의 사악과 불결과 부패에 잠겨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어찌 다시 평생토록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분명히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롬 6:15)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요, 동시에 과제이기도 한다. 신앙은 노력 없이 성장할 수 없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강력하게 권고 받는다.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부르는 요한의 강력한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려 들여야 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권면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정의 목적이 바로 성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역시 성화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여, 예정의 관점에서 성화를 보아야 한다.

제3절. 예정론에 대한 오해들

예정론을 다루는데 있어서 늘 공통적으로 반대되는 반론들이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현재에도 개혁신학의 성경적 예정론을 세워 가려고 할 때, 가

62) Institutes, III. vi. 2.

장 방해가 되는 내용들이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예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성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정에 대한 오해가 성화에까지 미쳐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정을 성화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기가 쉽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3장에서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오해들을 다루었다.

(1).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오해⁶³⁾

이는 오늘날도 예정론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도전되는 오해이기도 하다. 예정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아직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를 노엽게 한 일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그들에 대해서 노하시는가?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멸망에 내어 주신다는 것은 재판장의 합법적인 선고라기보다는 폭군의 변덕과 같다”⁶⁴⁾고 오해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권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서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최고의 표준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호기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추구하는 것은 심히 악한 짓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그러해야 마땅하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어떤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은 그 먼저 있는 것에 지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義)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한 걸음

63) Institutes, III. xxiii. 2-3.

64) Institutes, III. xxiii. 2.

더 나가서, 왜 그것을 원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것이며, 그것을 찾아 볼 수 없다.⁶⁵⁾

이와 같은 칼빈의 지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예정이 인간의 이해로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인간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여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가장 의롭고 공의와 정직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 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 표준이 되며, 모든 법의 법이다.⁶⁶⁾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이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원하셨기 때문”⁶⁷⁾이라는 답변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를 분명히 증거해 준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시 119:75).

이처럼 구원받을 자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그의 기쁘신 뜻일 뿐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강조점은 오직 그것뿐이다. 그것은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한 절대자의 의지이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비합리로 다가와 하나님이 폭군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판단할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참으로 현명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께만 범죄(犯罪)하여 주의 목적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純全)하시다 하리이다.”(시 51:4). 우리는 모두가 죄로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는 극히 가증할 뿐이다. 이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단 말인가?

65) Ibid.

66) Ibid.

67) Ibid.

‘예정 교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어리석은 주장에 대하여,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함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롬 9:20-21),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을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결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찬탄해야 할 것이다.⁶⁸⁾ 만일 우리가 예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결정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2). 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한다는 오해.⁶⁹⁾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점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현재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피할 수 없이 하는 일 때문에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⁷⁰⁾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통

68) Institutes, III. xxiii. 5.

69) Institutes, III. xxiii. 6.

70) Ibid. 이에 대한 기독교 강요의 각주를 보면,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Erasmus)임을 알 수 있다. 에라스무스는 1524년 “자유의지에 관한 논의(Discussion Concerning Free-Will)”라는 책을 내놓아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우 강조한 사람이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에 대한 반박으로 루터는 다음해인 1525년에 “의지의 노예(The Bondage of the Will)”라는 책을 내놓아 에라스무스와 논쟁하였다.

해서 일하신다면 어떻게 죄인들의 죄와 상관이 없겠는가?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반론인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쏠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이 주제는 개혁신교회 역사 속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어 왔던 주제이기도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제 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2.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듯한 혹은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豫知)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⁷¹⁾

이 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3중적인 사역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는 같은 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각각 동시에 역사한다고 주장한다.⁷²⁾ 이 말은 한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사탄과 사람도 나름대로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은 사역하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이 진행되어지면서도 각각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옳이 당한 고난을 예를 들어 갈대아 사람들과 사탄과 하나님이 같은 사

71) 『웨스트민스터 신앙규범서』 박창호 역 (서울: 도서출판 푸른초장, 1997), p. 22.

72) Institutes, II. iv. 2.

건 안에서 역사하셨음을 증거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동일한 이 일을,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드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같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우선 행동의 목적을 생각하고 다음에 행동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해결은 쉽다. 주의 목적은 재난으로 자기의 종의 인내심을 단련하려는 것이었고, 사탄은 욕을 절망 상태에 몰아넣으려고 애썼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공의(公義)를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보려고 했다. 목적이 아주 다른 것이 벌써 행동의 특색을 뚜렷이 나타낸다. 방법도 거기 못지않게 다르다. 주께서는 자기의 종을 사탄이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며, 심부름꾼으로서 갈대아 사람들을 택하여 사탄의 지배 하에 넘겨주신다. 사탄은 독을 문힌 창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자극하여 그 악행을 실천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범죄로 돌진해서 온 지체를 죄로 물들이며 더럽힌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사람들 위에 사탄이 지배력을, 즉 악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에, 사탄이 그들 속에서 역사 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하나님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역사 하신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사탄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돌리는 데는 조금도 모순이 없으며, 목적과 방법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아무 흠 없이 빛나며, 사탄과 사람의 추악한 행동이 그들의 사악함을 폭로한다.⁷³⁾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악한 동기와 목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기와 목적으로 그의 선하신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다.⁷⁴⁾ 따라서 범죄의 책임은 인간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는 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한다는 반대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재난은 하나님

73) Ibid.

74) 로레인 뷔트너, p. 262.

의 영원한 섭리에 의한 것이지만, 재난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인류가 멸망에 처한 유일한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불순하고 패악한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이다.⁷⁵⁾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순결하게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들을 그 씩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 16:4)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는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도록 독려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이해이다.

(3). 하나님이 편파적이라는 견해가 된다는 오해.⁷⁶⁾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을 선택할 때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했다면 이는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은 성경이 각처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느냐고 항의한다.⁷⁷⁾ 인간의 공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선택이라면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편애자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행하시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그들의 됴됨이에 따라 다루시지 않고, 어떤 자에게는 당연히 그의 것인데도 주지 않고 다른 자에게는 당연히 그의 것이 아닌데도 주는 자라는 것이다.⁷⁸⁾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편애자라는 것을 단호히 부인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종, 민족, 부귀, 권력과 같은 외적 조건에 따라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편파적으로

75) Ibid, p. 549.

76) Institutes, III. xxiii. 10.

77) Ibid.

78) 로레인 뵈트너, p. 299.

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반대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들은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말은 “속사람” 또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혹은 이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해서 등과 같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⁷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당연히 베풀어야 할 위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이다.⁸⁰⁾ 라이스(N. L. Rice)는 “아무리 알미니안주의 자라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각양각색(各樣各色)으로 대우하시되 이 세상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이 도리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기 교리만은 믿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류 가운데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⁸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를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다만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녀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신다.⁸²⁾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만일 누가 ‘하나님은 왜 만민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축복하시지 않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지 않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똑같이 다루시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

79) 로레인 뵈트너, p. 300.

80) Ibid, pp. 300-301.

81) Ibid, p. 302.

82) Institutes, III. xxiii. 10.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혼자서만 아시는 선하신 이유로 말미암아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그냥 버려두시기 때문이며, 더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내리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⁸³⁾

지금까지 살펴본 데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같은 태도로 예정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편파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변론하였다.

첫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정죄를 받았으므로 …… 그 중에서 귀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진 그릇은 그 자신의 의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다. 그러나 다른 그릇이 천하게 쓰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유를 탐구할 문제가 아니고 심판에 돌릴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벌을 주시지만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이유가 없는 은혜를 분재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비난도 받으실 이유가 없다. 마치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⁸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롬 11:5-6). 이 진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으며, 진정한 겸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칼빈은 말한다.⁸⁵⁾

83) 로레인 뵈트너, p. 303.

84) Institutes, III. xxiii. 11.

85) Institutes, III. xxi. 1.

(4).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적으로 말살한다는 오해.⁸⁶⁾

이는 예정론이 사람들에게 나태(懶怠)를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즉, 선행에 대한 열심과 노력을 좌절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자신의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⁸⁷⁾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말이다.

예정론을 믿게 되면 아무 일이나 노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반론은 수단과 전혀 관계없이 목적만 예정된 줄 아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고립된 몇 개의 사건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고, 상호연관성과 연쇄적 반응을 가진 일련의 사건 전체가 예정된 것이다.⁸⁸⁾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⁸⁹⁾ 예정론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태만(怠慢)하거나 방심(放心)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을 배가하도록 격려하고 사기를 돋구어준다. 인간은 성공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수록 일할 동기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일할 의욕도 없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정된 방법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86) Institutes, III. xxiii. 12.

87) Ibid.

88) 로레인 뢰트너, p. 289.

89) 바울은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15)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지론이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한 노력에의 동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견고한 확신 때문에 더욱 고양(高揚), 격려(激勵)되는 것이다.⁹⁰⁾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상으로 예정 교리를 명백하고 힘 있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그 예정 교리 때문에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잃어버렸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수고한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정 교리가 인간을 태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인간은 자기의 무능과 패망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태만하고 방심하게 사는 것이다. 칼빈은 '예정 교리는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적으로 말살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의 논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반박하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선택된 목적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엡 1:4). 만일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생활에 있다면, 선택은 아무 선행도 하지 않는 구실을 우리에게 준다고보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생활에 집중하겠다는 열의를 일으키며 자극할 것이다. 구원을 얻기에는 선택으로만 충분하다고 해서 선행을 중지하는 것과, 선택을 해 주신 목적인 선의 추구에 몸을 바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비교해 보라!⁹¹⁾

여기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은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밝혀 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90) 로레인 뵈트너, pp. 293-295.

91) Institutes, III. xxiii. 12.

예정하신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우리는 예정론이 고결하게 살려는 우리의 의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고결한 성화의 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오해.⁹²⁾

본 오해 역시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처럼 예정론의 주제에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반대주의자들은 예정론이 경건한 생활에 모든 충고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예정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늘 말해 왔다.⁹³⁾ 결국 이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그 논점이 집약된다. 인간은 창조된 인격체(a created person)이다. 이 말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피조물이나, 독립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이다. 성경은 이 두 국면을 다 말한다.⁹⁴⁾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두 면이 다 진리이며 역설(paradox)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free-will) 사이의 윤리적 조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할 때, 인간의 논리나 이성을 근거로 하지 말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인 인간론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윤리적 조화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창 1:26-27; 행 17:28; 롬 9:20-24 등). 피조물은 지음을 받았다는 차원 때

92) Institutes, III. xxiii. 13.

93) Ibid.

94) 느 9:6; 롬 9:12 등 - 피조물, 갈 6:7-8; 수 24:15 등 - 인격

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 눅 17:7-10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녀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전혀 피동적인 존재인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으며, 그 명령에 대해 가부간 결단해야 하는 존재로,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수 24:1; 고후 5:20; 갈 6:7-8).⁹⁵⁾ 인간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양면적으로 묘사한다. 토기와 같이, 만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임을 지적한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의존성을 가진 동시에 자유의지를 가진 신비한 존재이다. 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신비이다. 이 역설적인 국면의 어느 한 면이라도 부인되거나 거절되면, 그것은 성경적인 입장을 바로 견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⁹⁶⁾ 하나님은 인간을 이성 없는 피조물이나 로봇처럼 다루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시 110:3).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윤리적 조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free-will)’ 문제를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자유의지란 인간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양자택일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죄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선택한다. 인간의 삶의 한 평상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있

95) 최홍석, 『사람이 무엇이관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4), p. 21.

96) Ibid, p. 22.

다. 선택은 인간의 본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유로이,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선을 택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는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에게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유의지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거나 또는 그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어떤 일들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자 한다.”⁹⁷⁾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터무니없는 사상에 반대하여 루터는 성경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음을 주장하였다.⁹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곳은, 인간론을 다루는 2권 2장이다. 칼빈은 인간에게 ‘필연적 자유’⁹⁹⁾가 있음을 인정했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선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가 아닌 의지로 그의 행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행하는 것을 의지로 선택한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보잘 것이 없다.¹⁰⁰⁾ 칼빈

97) 마르틴 루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조주석 역 (서울: 나침판사, 1993), p. 5. 이 책은 1525년 마르틴 루터의 고전 “The Bondage of the Will”을 읽기 쉽게 요약한 책이다.

98) Ibid. 책 전체를 참고하라.

99) Institutes, II. ii. 5. 다음은 자유에 대한 칼빈의 주장이다. “스콜라 학자들은 세 가지 자유를 구별하여, 첫째는 필연에서의 자유, 둘째는 죄로부터의 자유, 셋째는 비참에서의 자유라고 한다. 처음 것은 사람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므로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는 죄로 인해 잃어 버렸다. 나는 기꺼이 이 구별에 찬성하지만, 필연성과 강제를 혼동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 박건택, 『칼뱅의 자유론』 (서울: 솔로몬, 2003), p. 43. 이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그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 자유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연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은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이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악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노예의지’라고 말한다.¹⁰¹⁾ 인간은 창조 시에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았으나 의지가 죄악에 빠져 정복되어,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어 그 결과 지금은 의를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¹⁰²⁾ 칼빈은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돕고 사람의 의지가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는 실현된다.”¹⁰³⁾고 하였다. 즉, 성령의 은총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시 확립되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사람의 자유란 의로부터의 해방이요, 죄에는 노예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이다. 칼빈은 구원 후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문제를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다루었다.¹⁰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하였다. 참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원래 상태에서는 이 참 자유를 소유하였으나 타락 후 이를 상실하였다. 즉, 타락 후 인간은 양자택일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01) 박건택, p. 304.

102) Institutes, II. ii. 8.

103) Ibid.

104) Institutes, III. xviii. 칼빈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며, 둘째는 첫째에 의존하는 것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이며, 셋째는 그 자체로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일들인 아디아포라(adiaphora)로부터의 자유이다. 칼빈은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지만, 이 세 번째 자유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정 교리가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정 교리는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여,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¹⁰⁵⁾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성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성화에 길을 걷게 된다.

제4절. 성화를 이루는 예정론의 실천적 효과들

본 항목에서 논자는 예정론이 단순히 사변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도의 전 삶에 실제적인 원리와 기초가 되는 실천적인 것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예정론을 보다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된 성화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본 논문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예정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메마르고 냉혹하며 탁상공론적인 이론 또는 부자연스럽고 생소한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따뜻하고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이다. 예정론은 성령의 감화 아래 인간의 성정(性情)을 형성하고 행위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위대한 실천적 체계이다.¹⁰⁶⁾

(1).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

예정론의 가장 실천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105) Institutes, III. xviii. 2-4.

106) 로레인 뵈트너, p. 371.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전 3:14)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정론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외하게 하는 원리가 됨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¹⁰⁷⁾고 예정론의 가치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칼빈은 이 예정론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 예정 교리 이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탄하기를 원하신다.¹⁰⁸⁾

예정론은 우리의 존재 및 소유의 일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한다. 또 인간의 자만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한없이 고양(高揚)시킨다. 이 교리는 인간을 무(無)로 돌리고 하나님을 전부로 하여 무한히 높으신 창조주와 피조자의 관계를 정당하게 유지시켜 준다. 그리하여 우주의 통치자이신 유일 절대의 주권자를 높이고 그에게만 일체의 권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⁰⁹⁾ 실제로 이 교리는 어떤 교리보다 더 많은 난제를 해결해 주며, 믿음과 소망에 대해 더욱 견고한 근거를 제공해 주며,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광과

107) Institutes, III. xxi. 1.

108) Ibid.

109) 로레인 뵈트너, p. 377.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8절의 내용이다.

이 숭고하고 신비로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여 그것에 순종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확신에서 출발하여 영원한 선택을 받은 것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존경과 감탄을 일으키게 하며, 또한 진실히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겸손해지게 하고 근면해지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합니다.¹¹⁰⁾

여기서도 우리는 예정 교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예정 교리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이끄는 실천적 교리이다.

(2). 구원의 확신을 심어 준다.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베드로후서 1:10)라고 강하게 권면한 것이다. 이 말씀은 예정론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 점에 대하여 칼빈 자신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정론을 논함에 있어서 나는 먼저 독자들에게 주의를 줄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무 유의

110) 『웨스트민스터 신앙규범서』, p. 25.

도 없이 인간의 마음을 찌르고 소란스럽게 하는 논쟁이나 그 마음을 지루하게 하는 탁상공론(卓上空論)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채택된 견고한 교리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애(仁愛)에 대해 찬송케 하는 한편 우리를 고양시켜 가장 높은 곡조로 이 선하심을 찬양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듣는 동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印)치사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불변하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폭풍이나 사탄의 어떤 공격 또는 육신의 어떠한 동요나 연약함에 의해서도 제거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의 품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¹¹¹⁾

또한 칼빈은 이처럼 귀중한 구원의 확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으로서 “사탄이 신자들을 낙심시키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유혹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다.”¹¹²⁾라고 말했다. 라이스(Rice)는 말하기를 “예정 교리는 위협의 한 가운데서도 신자들에게 안전감을 갖게 해주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요 변영의 길임을 확신케 해주며,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꾸준히 덕행을 실천하도록 격려해 준다. 그래서 먹구름과 어두움이 그들을 겹겹이 둘러싼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구제주의 약속을 확신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¹³⁾ 이처럼 우리가 구원 얻기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 성경의 다른 교리들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 뿐이지만, 이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갖게 해준다.

111) 로레인 뵈트너, p. 372.

112) Institutes, III. xxiv. 4.

113) 로레인 뵈트너, p. 373.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예정 교리만큼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예정 교리에 있다. 예정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한층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 그 결과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과 위로를 갖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헛된 삶을 버리고, 주님과 이웃을 향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하는 소명감에 불타게 만든다.

(3). 겸손하게 한다.

예정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은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서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엡 1:6; 2:8)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이해 할 때만이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고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 교리 이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¹¹⁴⁾라고 말하면서, 이 교리가 인간을 낮추어 겸손케 하는 기초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예정 교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준다. 예정 교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불타는 세상의 현 상태에서 끄집어내진 하나의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지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 얻은 것임을 알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며, 힘써 선행을 하려고

114) Institutes, III. xxi. 1.

애쓰는 것이다. 인간을 경건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길을 오직 예정 교리에 대한 철저한 신앙뿐이다.¹¹⁵⁾ 예정 교리를 통해 이런 겸손함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선행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가 아닌 ‘참된 의’를 추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삶이 야말로 진정 거룩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¹¹⁶⁾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된다. 참된 은혜는 기쁨을 갖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며, 겸손하게 한다.¹¹⁷⁾

(4). 더욱 힘써 성화의 길을 걷게 한다.

예정 교리를 믿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여 성화의 길을 소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오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정 교리는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더욱 힘써 성화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정의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밝혔다. 베드로후서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내용과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115) 로레인 뵘트너, p. 376.

116) 브라이언 채플, 『성화의 은혜』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p. 12.

117) Ibid, p. 13.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 자체에 거룩함으로 세워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게을러 질 수 없고 오히려 최고의 노력을 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정에 대한 신앙은 성도를 태만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확신을 고무(鼓舞)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인간은 성공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할수록 일할 동기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일할 의욕도 없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으로 구원을 보장 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한 노력에의 동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견고한 확신 때문에 더욱 고양(高揚)되어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¹¹⁸⁾

교회사를 통해 칼빈의 예정 교리를 믿었던 자들의 실제적인 열매를 보면, 우리는 예정 교리가 성도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다.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 지도자들과 청교도(淸敎徒)들의 거룩한 삶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충분히 고찰할 수 있다. 루터, 칼빈, 썬빙글리 기타 모든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철저한 칼빈주의자로 예정을 믿었던 자들이다. 그 시대에 걸쳐 일어났던 최대의 영적 부흥은 그들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결과들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16-17세기 영국 및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칼빈주의의 사상을 이어 받은 청교도들은 어떠한가? 그들의 이름을 '퓨리탄(Puritan)'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칼빈의 예정 교리를 신봉하는 이들이 예배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절대적 순결을 고수(固守)했기 때문에 이 칭호를 얻게 된 것이다.

헨리 워드 비처(Henry Ward Beecher)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순결한 성품에 대한 이념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데는 칼빈주의

118) 로레인 뵈트너, p. 295.

를 따라갈 체계가 전혀 없다. 이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은 동기를 인간에게 부여하고 또 이처럼 무서운 대포로 최악의 근거를 일소해버리는 포대를 구축한 체계는 인류역사상 그 유례가 없었다. 다른 체계들은 인간을 유약하고 더러운 상태로 방치해두지만 칼빈주의는 그들을 영원히 견고할 순백(純白)의 대리석으로 만들어 준다.”¹¹⁹⁾ 그렇다. 예정 교리는 인간의 생활을 부도덕과 절망으로 이끄는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방향 즉, 도덕적이며 소망 있는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이끌어주는 체계이다.

(5). 실제적 위로를 제공해 준다.

예정론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정 교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밝히 보여 준다.

그러므로 최악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실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신앙을 갖게 해준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정에 대한 논의를 험한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고의로 위험한 곳에 뛰어들지만 앓는다면 그 바다를 건너는 뱃길은 안전하고 평온하며 심지어 상쾌하다고도 하겠다. 자기들의 선택을 더욱 확신하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의 말씀과 별도로 탐구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심연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선택을 바르고 합당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은 말

119) Ibid, pp. 318-319.

할 수 없는 **위로의 열매**를 거둔다.¹²⁰⁾

이처럼 칼빈은 당시 핍박 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변호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정 교리를 담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예정을 가장 확실하게 말했던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예정 교리가 성도에게 실제적인 위로의 가치를 준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감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3-39).

소위 인생의 불행이나 재난들도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파스칼(Pascal)은 가족을 잃은 친구에게 상투적이며 진부한 위로의 말 대신 예정론을 조위(弔慰) 문으로 써서 보냈다고 한다.¹²¹⁾ 이처럼 우

120) Institutes, III. xxiv. 4.

121) 로레인 뵈트너, p. 374. 조위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 일을 우연한 사건이나 운명적 필연으로 보지 않고 영원 전부터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시(某時),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정된 하나님의 공의롭고 기록하며 불가결한 작정의 결과로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하게 침묵하며 헤아릴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미해야 할 것이요, 그의 작정의 존엄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섭리를 찬양하며 우리의 뜻을 그의 뜻에 합치시켜 그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도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이루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리가 예정 교리를 확실히 알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전지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비해, 박해, 실패에서는 실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큰 힘을 준다.

제5절. 예정 안의 구원의 단계들과 성화의 내적 연관성

여기서 예정 안에서의 구원의 단계들을 논하는 이유는 성화가 구원의 단계들 중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정 안에서의 구원의 단계들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성화에 대한 본질이 규명되기 것이다. 구원의 단계들을 신학용어로 ‘구원의 서정’(ordo salutis)¹²²⁾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서정이란, 그리스도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구속 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또한 이들을 상호연관 하에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³⁾ 즉, 구원의 순서는 ‘시간상의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이며, 구원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 사이의 상호연관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단회적인 사건이 있고 지속적인 과정이 있으나, 구원의 모든 단계는 동시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여 완성시키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구원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성경은 아주 상세한 구원의 순서를 말하지는 않았다. 성경에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칼빈의 견해

122) 1737년 루터파 신학자인 야곱 칼포프(Jacob Carpov)가 구원의 문제를 기술하면서 “ordo salutis”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 22.

123)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④』 권수경·이상원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 660.

는 어떠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 칼빈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틀림없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하시오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만 자신의 생명 안에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정하신 순서에 따라 그들 안에서 자신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¹²⁴⁾

칼빈은 롬 8:30에 나타난 구원의 순서, 예정 - 부르심 - 칭의 - 영화에서 각 단계들을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구원론에 대해 기록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전체를 통해서 보면, 부르심에는 중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¹²⁵⁾, 믿음이 있어야 회개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²⁶⁾ 또한 칼빈은 성화가 칭의의 은혜와 더불어 주어진다고 보았다.¹²⁷⁾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각 단계들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구원의 순서의 각 단계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동시적이고 유기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중생이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의 처음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주는 여파는 신자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어진다. 회개도 믿음의 시초에 일어나지만 그것은 신자의 삶의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믿음 역시 구원의 순서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믿음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서도 필수적이다. 칭의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어지지만, 칭의

124) Institutes, III. xviii. 1.

125) Institutes, III. iii. 1.

126) Institutes, III. iii. 8.

127) Institutes, III. xi. 1.

가 수반하는 혜택들을 얻기 위한 노력이 칭의를 얻는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한다. 성화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와 동시에 주어진다. 믿음이 주어지면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중생과 더불어 그리고 칭의와 함께 성화가 시작된다.¹²⁸⁾ 이와 같이 구원의 단계들은 동시적이고 유기적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엡 1:4).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와 사죄의 은총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다.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와 성화의 과정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택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한 요구사항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고 빈곤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익에 참여하도록 이끄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한 그의 사역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¹²⁹⁾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받아 주셔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음으로 하나님은 회개의 훈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게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욕을 죽이고 영을 소생시켜 하나님의 법을 순종케 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화나 회개는 하나님의

128) Ibid.

129) Institutes, III. i. 1.

은혜요, 동시에 우리에게 부과된 과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성화는 구원의 여러 단계들 중의 하나이며, 다른 단계들과 불가분(不可分)의 긴밀한 내적 연관성이 있다.

(1).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¹³⁰⁾이라고 칼빈은 정의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중보자인 그리스도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완전한 것이 된다.¹³¹⁾ 칭의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때 성화는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어 진다고 하겠다. 칭의가 하나님이 받아 주심으로 인하여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법정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성화는 신자들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지속적인 개혁의 작업’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서로 간의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로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누구라도 칭의 없는 성화나 성화 없는 칭의를 이룰 수는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은 백성이 성화의 과정에 불참하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요, 이차적으로도 맞지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은 행위와 별도 일 수가 없다.”¹³²⁾는 칼빈의 시편 주석을 유의해야 한다(시 103:3).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함으로써 신자의

130) Institutes, III. xi. 2.

131) J. 리차드, 『칼빈의 영성』 이창우 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6), p. 148.

132) J. Calvin, 『시편 주석』 존 칼빈 성격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p. 148.

내면적, 실제적 성화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¹³³⁾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칭의와 성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믿음과 성화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로 놓이게 되므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화와 칭의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의롭게 하며, 동시에 경건한 삶과 함께 성화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화는 단순히 칭의에 의한 후차적 결과의 산물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성화는 단순히 칭의에 의한 후차적인 산물이 아니라, 칭의와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단지 논리진행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비의 보고가 먼저 열려 죄의 용서가 전파된 다음에 거룩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 오해는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거룩해 질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경우 거룩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¹³⁴⁾ 자연인은 스스로 거룩해 질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육을 날마다 죽일 때 성화는 가능한 것이다.

성화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 모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위에 동시적으로 있게 된다. 성화와 칭의는 그 성질상으로 구별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며, 그 줄은 서로 뿔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성화가 칭의의 후차적 산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이 둘은 똑같은 원천에서 나오지만 서로 논리적으로 구분된 채 남을 뿐이다. 오히려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단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였다”¹³⁵⁾라고 주장한다. 이는 칭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의 거룩한

133)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 27.

134) 칼빈은 진정한 신자들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Institutes, III. xiv. 9.

135) Ibid.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며, 죄를 거저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큰 자비와 연결되는데, 이 자비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며, 그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날로 더욱 더 죽이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결케 되는 것이다.¹³⁶⁾

(2). 믿음과 성화의 관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표현하는 말들은 대체로 믿음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¹³⁷⁾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의 용서와 화평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지셨을 뿐 아니라, 성결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보내지셨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¹³⁸⁾ 그러므로 믿음을 성화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칼빈은 믿음에 의하여 선행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¹³⁹⁾를 붙잡으며,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데 그 은총 속에는 거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36) Ibid.

137) Institutes, III. i. 4.

138) Institutes, III. ii. 8.

139)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란 인간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루신 의를 말한다. 롬 8:3-4를 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요 7:37-39; 갈 3:14).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전 12:3).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칼빈은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부패 덩어리인 우리 육의 욕망들이 매일 죽임 당하고 거룩해진다고 하였다.¹⁴⁰⁾ 이처럼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옛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 거룩하게 함으로 나타난다. 죄악을 벗어나 늘 거룩해지게 역사함으로 점점 옛 사람이 다 죽게 한다. 물론 칼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육체 안에 싸여 있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¹⁴¹⁾,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한다(엡 4:13).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엡 2:21).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는 것이다.¹⁴²⁾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고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룩해지는 성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성화의 관계는 불가분(不可分)의 깊은 내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칼빈은 믿음과 성화의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와 분리해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¹⁴³⁾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는 거룩한 삶과 함께 시작한다. 왜냐하면 모든 참된 구원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성화의 영을 가지며, 이것을 거룩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칼빈의 말을 빌리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마치 흠 없고 완전한 것처럼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신다. 왜냐하면 믿

140) Institutes, III. xiv. 19.

141) Institutes, III. xiv. 10.

142) 서철원, 『성령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3), p. 174.

143) Institutes, III. ii. 8.

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¹⁴⁴⁾

(3). 회개와 성화의 관계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는 그의 신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回心)을 전체적으로 '회개'란 말로 이해한 칼빈은 회개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轉向)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轉向)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 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써 성립된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다.¹⁴⁵⁾

이처럼 회개란 죄의 용서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개란 본래 히브리어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회개란 나쁜 일을 하는 것에서 돌이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회개란 하나의 행위에서 또 다른 하나의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데로 돌이키는 것을 뜻한다.¹⁴⁶⁾ 물론 참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를 후회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고, 참 회개를 한 뒤에는 변화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뉘우침과 변화된 행위가 회개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참 회개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분의 용서를 강요할 수도 없음을 아는데 있다. 회개란 근본적으로

143)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 James Anderson, vol. (Edinburgh: Printed for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M.DCCC.XLV.), Psalms 32:11.

145) *Institutes*, III. iii. 5.

146) 브라이언 채플, p. 123.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겸손히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¹⁴⁷⁾

칼빈은 회개를 한 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 했는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다.¹⁴⁸⁾ 그러나 이 회복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에 걸쳐서 필요한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이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때에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 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그들을 성전으로 주께 바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순결에 이르게 하시며, 그들이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나는 것을 알게 하신다.¹⁴⁹⁾

즉, 그리스도인의 일생 속에서 완전한 성화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육의 옷을 벗는 날에 이루어질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일평생 싸워나가야 한다. 칼빈은 성화와 회개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신자가 회개의 경주장에서 일평생을 계속 달리는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육신을 날마다 생명과 평안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¹⁵⁰⁾ 바로 회개의 경주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의 삶이 성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147) Ibid, 125.

148) Institutes, III. iii. 9.

149) Ibid.

150) Ibid.

제3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

칼빈의 성화론을 바르게 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칼빈의 성화론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를 말한다. 이는 그의 신학의 핵심을 담은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구원론을 다루는 부분을 살펴보자. 처음 시작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칼빈이 그의 구원론의 시작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 없으며, 구원의 한 과정인 성화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빼 놓고는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게 된다.¹⁵¹⁾

사실, 성도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¹⁵²⁾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구원의 적용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성화 사역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칼빈의 성화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에, 먼저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이며, 이것이 그의 성화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신학적 제시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은 그의 구원론적 기초를 이룬

151) Institutes, III. i. 1.

152) 김광열, 『구원과 성화』, p. 28.

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제3권 구원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면서 시작하였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며 행하신 일들 모두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시야 했다. …… **우리가 그분과 한 품이 되기까지는**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¹⁵³⁾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무관하면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용(無用)하고 허사(虛事)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와 생명과 성화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칼빈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때와 같이 역사한다고 말했다.¹⁵⁴⁾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만** 우리와 결합하신다. 같은 영의 은혜와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의 아래 두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¹⁵⁵⁾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의 역사인 ‘믿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¹⁵⁶⁾라고 한 것이다. 즉, 우리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분의 의를 전가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⁷⁾

153) Institutes, III. i. 1.

154) Ibid.

155) Institutes, III. i. 3.

156) Institutes, III. i. 4.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우리는 이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살 중의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의 뼈가 되는 거룩한 결혼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엡 5:30).¹⁵⁸⁾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¹⁵⁹⁾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점차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이다. 그렇다면 성화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이 분명하다. 칼빈 역시 성화의 핵심을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칼빈의 성화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격을 궁극적으로 '신비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⁶⁰⁾ 그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신비적인 유대가 형성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인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을 누리게 되었다.¹⁶¹⁾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신비로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바로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칭의와 성화 모두를 위해서 지속되는 것은 바

157) Institutes, III. ii. 30.

158) Institutes, III. i. 3.

159) 브라이언 채플, p. 57.

160) Institutes, III. xi. 10.

161) Institutes, III. i. 1.

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이다.

칼빈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본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성령이 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 없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꿈꾸는 사람들도 어리석고 불합리한 자들이다. 둘 다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참여자인 것이다.”라고 그는 에베소서 3장 17절의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¹⁶²⁾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 현상은 우리가 명쾌하게 형언할 수 없는 것이며, 신비적인 차원이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긴밀한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까지 우리는 이 비할 데 없는 선을 가질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¹⁶³⁾

칼빈 당시 로마교회는 중세 스콜라주의를 답습하여 그릇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에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차원에서 구원론을 정의하고 더욱 더 자세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로마교회의 협동설에 대항하여 우리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필수적 교리가 되었다.¹⁶⁴⁾ 소위 교황주의자들(Papists)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는 그분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 자신이

162) John. Calvin, 『에베소서 주석』 존 칼빈 성격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p. 332.

163) Institutes, III. xi. 10.

164)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6), p. 34. 로마교회의 협동설이란 마치 그들에게 본래부터 심겨진 것처럼 우주적인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졌으므로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난 교리이다.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공로적 칭의**에 관한 로마교회의 주장이다.¹⁶⁵⁾ 이에 대해 칼빈은 로마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칼빈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바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것이다.¹⁶⁶⁾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롬 5:8),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롬 5:10)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한다. 믿음이란 본래 공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립될 견고한 조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⁶⁷⁾ 또한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타당성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⁶⁸⁾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믿음의 열매를 칭의와 성화 모두를 포함한 **이충의 은혜**로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붙잡고 소유하게 하신다. 우리는

165) Norman L. Geisler and Ralph E. MacKenzie,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온성 역 (서울: 그리스심, 2003), pp. 329-332.

166) 원종전, pp. 36-37.

167) Ibid.

168) Ibid.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는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운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됨으로써** 흠 없고 순전한 생활을 신장시킬 수 있다.¹⁶⁹⁾

칼빈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의 용서와 화평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결을 위해서(고전 1:30), 그리고 생명수의 원천으로서(요 7:38; 4:14) 보내지셨으므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¹⁷⁰⁾고 확고하게 말한다. 이처럼 믿음에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참된 “구원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경건한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¹⁷¹⁾

이상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칭의와 성화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본질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었고, 성화된 삶으로 인도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칼빈의 입장에서는 성화가 단순히 칭의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화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곧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뿌리를 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칼빈의 또 다른 견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는 남다른 시각에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히

169) Institutes, III. xi. 1.

170) Institutes, III. ii. 8.

171) Ibid.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데, 칭의는 바로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¹⁷²⁾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심은 우리가 그의 육체를 입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심으로 인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인성이 연합과 교제를 위한 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 편에서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전제로 하게 된다.¹⁷³⁾

제2절. 주석적 제시

칼빈의 가르침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이다. 논자는 칼빈의 견해가 매우 성경적임을 밝히고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칼빈의 사상이 매우 성경적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 놀라운 진리를 두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

172) Ibid. 칼빈은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된다’는 오스안더의 주장에 대해 논박한다. 그는 Institutes, III. ii. 8-12장에 걸쳐 중보자 그리스도가 신성으로가 아니라 인성을 입으신 채로 육신으로써 속죄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칭의가 주어졌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또한 오스안더의 ‘본질적 의’라는 생각은 구원의 확실성을 소멸시킨다고 반박함으로 ‘전가된 의’를 주장하였다.

173) 원중천, pp. 51-52.

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 같은 사상을 담고 있는 또 다른 구절로는 요한복음 15:4, 5, 7; 고린도전서 15:22; 고린도후서 12:2; 갈라디아서 3:28; 에베소서 1:4; 2:10; 빌립보서 3:9; 데살로니가전서 4:16; 요한일서 4:13 등이 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인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상반절) 이 같은 사상을 담고 있는 또 다른 구절로는 롬 8:10; 고후 13:5 그리고 엡 3:17에도 나타난다. 또한 이 두 개념이 동시에 나타난 성경구절도 있다. 요한 6:56; 요한 15:4; 요일 4:13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형태의 표현들은 교체적으로 바뀌 쓸 수 있는 표현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¹⁷⁴⁾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원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뿌리를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두고 있다. 즉, 예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4절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창세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축복들로 우리에게 복주셨는데, 이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더

174) 안토니 A. 후크마, pp. 92-93.

육이 이 연합은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구원역사인 **예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마침내 이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태어난 이후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졌으며, 그들의 평생에 걸쳐 지속되며 다가올 세상에서 그들이 온전히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두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실제적 적용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¹⁷⁵⁾ 여기에서도 우리는 왜 성화를 예정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성화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엡 1:3-4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에 “추가로 덧붙여진”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은 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존 머레이(John Murray)는 “그것은 덧붙여진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흘러나온 것이라”¹⁷⁶⁾고 표현했다. 아무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뿌리를 예정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우리를 거룩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거룩케 된다.

고린도전서 1:30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라면 그와 하나 됨으로써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구절이 있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일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 내가 저 안

175) Ibid, 93.

176) John Murray, 『구속론』 허문호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p. 215.

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다.¹⁷⁷⁾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 성화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재능과 여러 능력들이 점진적으로 다듬어지고, 발전되며, 순화되어 우리의 최상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성화를 이루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고삐를 늦추려고 하는 그 욕욕을 먼저 누르고 굴복시켜야 한다.”¹⁷⁸⁾고 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많은 죄와 무기력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천진해야 하며,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한다.**”¹⁷⁹⁾고 하였다.

이제 논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2:20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어떻게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바울은 자신을 본보기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 2:20)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앞의 19절에 근거를 둔다. 바울은 그곳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갈 2:19)고 말하였다. 여기서 율법이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주신 모든 도덕법을 가리킨다. 율법은 선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지 못한다.¹⁸⁰⁾ 이에 대해 칼빈은 ‘율법 아래의 회개’와 ‘복음 아래의 회개’를 언급하

177)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John 15:4-5.

178) *Institutes*, III. iii. 14.

179) *Ibid.*

180) 브라이언 채플, p. 58.

면서, 율법의 회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못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나, 성령의 통한 복음의 회개는 주께로 돌아와 진정한 회개를 이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내비쳤다.¹⁸¹⁾

바울은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고백했다(갈 2:20).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정한 수준의 도덕적 성취와 삶의 의미를 일구어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자를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²⁾

칼빈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참된 회개와 성화를 이루는 것임을 말하였다.

이 두 가지 일¹⁸³⁾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에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롬 6:6) 썩은 본성이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힘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된다.¹⁸⁴⁾

우리는 외적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외적 행위란 단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

181) Institutes, III. iii. 4.

182) 브라이언 채플, p. 60.

183)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두 가지 일’이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을 말한다.

184) Institutes, III. iii. 9.

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 교만이 죽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공로로 여겨 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칼빈의 일관된 사상이다. 칼빈은 심지어 “사람들이 보통 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히 불의이며 정직이라고 보는 것은 부패이며,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치욕이다.”¹⁸⁵⁾라고까지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다.¹⁸⁶⁾ 그러므로 우리는 옆 사람 보다 더 낮고, 그보다 죄를 덜 짓고,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바울은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갈 3:26-28). 한 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행위로 영적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이미 죽은 사람의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우리의 영적 교만이 죽을 때,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험담을 하고, 누가 더 신령하고 누가 덜 하고 하는 등의 모든 다툼과 비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사이에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갈 5:24). 이미 죽은 자의 행위가 아무런 가치나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남보다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성도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일등 신자와 이등신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시며 그분의

185) Institutes, III. xii. 4.

186) Institutes, III. xii. 1.

관용을 근거로 삼아 모든 일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이다”¹⁸⁷⁾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와 사망을 자신 있게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신자가 아니다.”¹⁸⁸⁾라고까지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칼빈은 “믿음의 확실성이 확고부동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라.”¹⁸⁹⁾라고 말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에 찬 권고이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게 되면, 결코 영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비록 영적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겠구나.’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이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하시고 거룩한 아들로 받으시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삶은 ‘완전’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대체하신다.¹⁹⁰⁾ 우리 스스로의 의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취하신 의가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칼빈의 의하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¹⁹¹⁾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칼빈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¹⁹²⁾라고 하였다.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

187) Institutes, III. ii. 16.

188) Ibid.

189) Institutes, III. ii. 24.

190) Institutes, III. xiv. 12-14.

191) Institutes, III. i. 1.

192) Institutes, III. i. 4.

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¹⁹³⁾고 하였다. 그런데 칼빈은 이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¹⁹⁴⁾고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칼빈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해 살아가는 ‘성령의 통한 거룩한 삶’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극소수라는 데 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이를 그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이에 못지않게 많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감을 받으려고 한다. 즉, 이들은 과거에 회심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신실한 삶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의도적으로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적다는 사실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 칼빈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잘 정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여,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다음 두 가지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첫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

193) Institutes, III. ii. 7.

194) Institutes, III. ii. 8.

는 것이 불가능해진다.¹⁹⁵⁾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심어준다. 이 두 가지 확신이야말로 성결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된다. 첫째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며, 둘째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이다.¹⁹⁶⁾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했던 그 믿음으로 얻은 칭의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성화는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이 칼빈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다.

바울은 우리의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며,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행하신 구원 사역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나의 행위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갈 3:26,27; 엡 2:18-22, 5:1,2).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덕분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한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상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의 수단¹⁹⁷⁾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산소'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단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이미 제공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된다. 숨을 더

195) 브라이언 채플, p. 77.

196) Institutes, III. xiv. 12-14.

197) 기도, 성경읽기와 묵상하기, 성도의 교재, 예배, 말씀의 권고, 성례 참여

등

쉬거나 덜 쓴다고 해서 주변의 공기가 변동되는 법은 없다.¹⁹⁸⁾ 마찬가지로 은혜의 수단을 더 열심히 활용하거나 덜 활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새로운 신분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경건한 삶을 더욱 힘써 살아 갈 수 있다.¹⁹⁹⁾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능력을 얻는다는 점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성령의 은혜의 열매이다”²⁰⁰⁾라고 말하였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치 않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posse non peccare*).²⁰¹⁾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이며 얼마든지 성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지닌 존재로서 점차 악을 분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또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칼빈

198) 브라이언 채플, p. 83.

199) Ibid.

200) Institutes, III. i. 3.

201) 브라이언 채플, p. 87. “*posse non peccare*”라는 문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이란 의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쉽게 옛 본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구원받은 피조물로서의 신자를 묘사하는 고전적인 신학적 표현이다.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신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non posse non peccare*)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posse non peccare*) 상태로 바뀌었으며,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

에 의하면, 이러한 능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성결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 성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 노력 또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이다.

제4장. 예정의 관점에서 본 칼빈의 성화론

제1절. 칼빈의 성화론 고찰

칼빈의 성화론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의 신학적인 특징을 살펴볼아야 하는데, 그의 사상의 특징은 인식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인식론의 특징은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확신하고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인식론이라 함은 철학에서 다루는 인식론을 의미하지 않고, 기독교 진리의 신앙적 신(神)인식에 관한 것이다.²⁰²⁾ 칼빈의 인식론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능이나 자연계시만 가지고 신(神)인식이 가능하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자나 이방종교에서 말하는 신(神)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칼빈의 인식론의 골자는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없이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무한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은 철학적 사변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계시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성경의 증거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교의 집체(集體)이다. 어떠한 교리를 다루든지 칼빈은 합리적인 논증으로 그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으로 증명하고자 한다.²⁰³⁾ 성경으로 제시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모든 신학적 진술을 위한 원칙이다. 왜 칼빈은 굳이 이성에 의한 합리적 논증보다 성경에 의한 증거를 선택하고 있는가? 칼빈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알아듣기에는 너무나 눈멀고 어리석다고 말한다.²⁰⁴⁾

그러므로 칼빈은 논증에 의해서보다는 성경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202) 이수영, “칼뱅 신학의 몇 가지 기본적 관점” 『장신논단』 1985 창간호, p. 80.

203) Ibid.

204) Institutes, II. ii. 19.

을 더욱 좋은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는 “성경은 우리가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다. 성경은 생명의 빛이요, 명백한 진리를 위해 열려진 학교이다.”²⁰⁵⁾라고 말한다. 또한 칼빈은 성령의 내적조명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알게 하시므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중으로 일하시는데 즉, 안에서는 그의 영으로 밖에서는 그의 말씀으로 일하신다.²⁰⁶⁾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그 지식은 성령이 일으키는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지식이란 단순히 이성과 두뇌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말하면서 믿음의 지식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으며, 나아가 단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실천과 삶으로 직결되는 신앙을 가르쳤다.²⁰⁷⁾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의 교리를 ‘실천의 교리’라고 평가한다. 칼빈은 복음은 말의 교리가 아니고 삶의 교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여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⁰⁸⁾ 이는 믿음의 지식이 헛된 사변보다는 생생한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간의 이성과 기억력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지식에 대한 칼빈의 견해이다. 칼빈은

205) Institutes, I. vii. 5.

206) Institutes, II. v. 5.

207) 이수영, p. 90.

208) Institutes, III. vi. 4. 성경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처럼 중요한 관심사도 흔치 않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고, 영혼 속에 일어난 변화는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죄가 들어 올 때에도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도 마음을 통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고 했던 것이다.

믿음의 지식의 실천적인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 한다.

실천과 경험 속에 놓여 있는 이 지식은 모든 게으른 사변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왜냐하면 신자의 영은 그가 생기를 얻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됨을 느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바 없어 인정하게 되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⁹⁾

이처럼 칼빈의 신앙에 관한 지식은 실천적이므로 그의 성화를 이해하는데도 사변적이 아닌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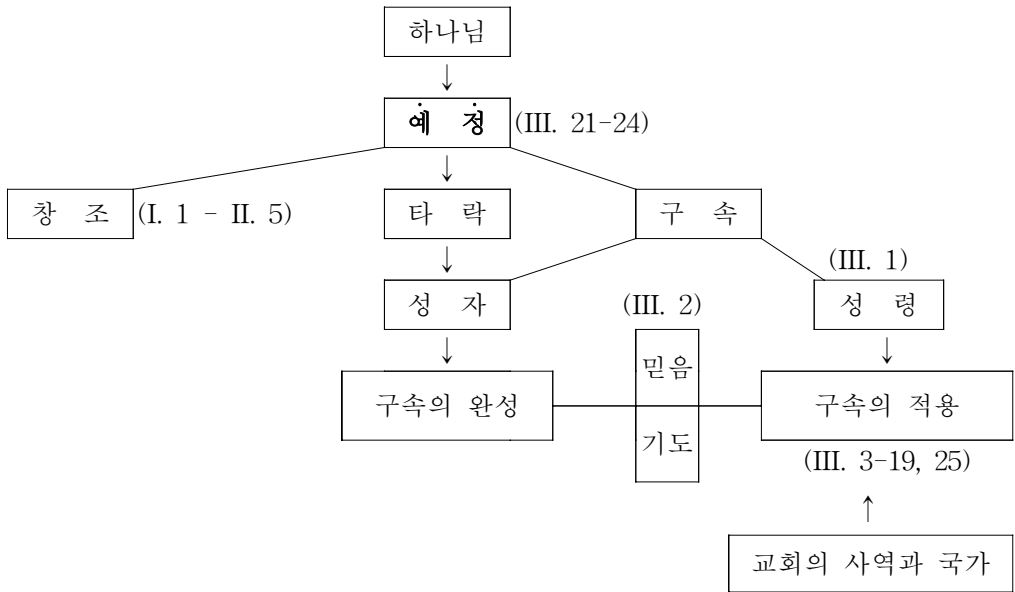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화론'이라는 것만 따로 다룬 것은 없고 다만 기독교 강요 제3권 '구원론' 전체 내용에 퍼져 있다. 이는 칼빈이 성화를 구원의 전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칼빈은 논자의 주장대로 예정의 관점에서 성화론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의 모든 신학적 논의는 하나님 중심사상에 기초하며 전제되고 있으며, 신학적 구조는 구원론적이요, 구원의 목적을 위해 쓰여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의 모든 사건을 포함시킨다.²¹⁰⁾

칼빈 연구 권위자로 잘 알려진 한철하 박사는 기독교 강요 전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차트로 요약하고 있다.²¹¹⁾

209) Institutes, I. xiii. 13.

210) 한철하, "칼빈의 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성경과 신학』 제 15권(1994), p. 13.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종교개혁의 근본원리인 이신칭의(以信稱義)가 전체 내용의 중심을 이루며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구원론 중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211) Han Chul-Ha, "Theology of Ministry in John Calvin", ACTS. Theological Journal, Vol. 4. (Seoul: Asia United Theological College, 1991), pp. 29-34.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가운데 과연 어디서부터 성화론을 다루었는지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한철하 박사는 3장부터 10장까지를 회개에 의한 중생, 11장에서 13까지를 칭의를,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를 본격적인 성화론으로 보고 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철하 박사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를 예정의 큰 틀 안에서 보고 있다.

성화란 우리의 책임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며, 우리의 본성 전체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우신 사역이다.²¹²⁾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벰전 1:16).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성화는 ‘인간의 책임있는 참여가 수반되는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들을 죄의 오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하

212) 안토니 A. 후크마, p. 315.

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²¹³⁾

칼빈은 성령에 의해 중생된 자는 반드시 성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內主)하셔서 우리의 욕망이 매일 점점 죽어가므로 우리는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하신다고 하여 우리가 인형처럼 가만히 있어도 성화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²¹⁴⁾ 칼빈은 성령으로 중생된 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 참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며, 마음은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고 했다. 결국 성령으로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의 영광만을 증진시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원하게 된다는 뜻이다.²¹⁵⁾

제2절. 칼빈 성화론의 특징

(1). 하나님 은혜중심의 성화론

칼빈 성화론의 특징은 단연코 '하나님 은혜중심의 성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성화를 인간의 관점에서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 칼빈은 인간을 다음과 같이 4종류로 구분한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에 파묻혀 있는 자, 둘째는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여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셋째는 사악한 마음을 헛된 외식으로 감추는 위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자이다.²¹⁶⁾ 칼빈은 마지막 종류의 사람이

213) 델빈 디이터의 4인 공저,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중 안토니 후크마의 “개혁주의 입장” 김원주 역 (서울: IVP, 1993), p. 77.

114) G.E. 래드, 『신약신학』 신성중·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p. 553.

215) Institutes, III. xiv. 9.

216) Institutes, III. xiv. 1.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증재에 의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며, 죄를 거저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큰 자비와 연결되는데, 이 자비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며, 그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날로 더욱 더 죽이시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성결케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 참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며, 우리의 마음은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²¹⁷⁾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5:24),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고후 3:18), 그리스도의 재림 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 올라가며(히 11:5),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빌 3:20-21). 이처럼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칼빈의 하나님의 은혜중심의 성화론은 로마교회의 인간의 공로사상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로마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칭의 속에 성화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칭의는 인간의 선행으로 보존된다고 가르친다.²¹⁸⁾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에 의하여 칭의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²¹⁹⁾ 율법에 대한 순종이며, 성화의 열매인 것이다.²²⁰⁾ 이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 은혜중심의 성화론을 전개하고 있다.

217) Institutes, III. xiv. 9.

218) Institutes, III. iv. 12.

219) Institutes, III. xvi. 1.

220)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 『복음과 신학』 통권 제1호 (1996. 2), p. 48.

(2). 일평생 계속되는 점진적 성화론

칼빈에 의하면, 성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단 회적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계속되는 점진적 과정이다.²²¹⁾ 성화는 주의 재림 시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다(살전 5:23,24). 성도들은 회심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한다. 실생활에서 실제적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롬 6:13). 성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성화의 과정은 확실하게 견지된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고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²²²⁾ 그때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쫓아갈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²²³⁾

이처럼 성화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되고 헌신되어 질 때 성화의 역사는 계속 활기차게 지속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칭의 받은 자들에게 생활의 변화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전진하게 하신다고 주장한다.²²⁴⁾ 이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사역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가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원의 은총을 단번에 받아서 완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²²⁵⁾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칼

221) 엡 4:12,13; 빌 1:9-11; 고후 7:1; 골 3:5,20.

222) 롬 8:13; 벰전 1:22; 갈 5:22-23.

223) 벰후 3:18; 살전 3:12; 빌 3:12; 고후 3:18; 엡 4:11-15.

224) Institutes, III. iii. 9.

225) 에드가 영 멀런스, 『조직신학원론』 권혁봉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87), p. 428.

빈은 칭의 받은 성도에게도 죄의 흔적이 항상 남아 있다는 것은 경험상으로 잘 아는 사실이라고 가르친다.²²⁶⁾ 우리들은 육체를 가진 한계성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를 실천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일은 죽음이 와야만 끝나는 것이다.²²⁷⁾ 칼빈은 “성도들이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세 생활에서는 죄 없는 완전성을 체험하지는 못한다.”²²⁸⁾ 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완전무결한 순결을 주장하는 일부 재세례파의 주장을 반대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파견되셔서 우리의 불결을 씻어 버리시므로 우리가 성화되지만, 육신을 쓰고 있는 한 죄 속에 얽혀 있으므로 우리는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직 꾸준히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전진해야 한다.²²⁹⁾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은 회개를 매우 강조하였다. 칼빈이 말하는 회개의 정의는 ‘육의 죽임’과 ‘영의 살림’으로 되어 있다.²³⁰⁾ 이 회개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어 성화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다. 칼빈은 일평생 계속되는 점진적 성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중생에 의해서 아담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생명의 기업을 받도록 양자로 삼으신 모든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때에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 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 버리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그들을 성전으로 주께 바치

226) Institutes, III. iii. 10.

227) Institutes, III. iii. 9.

228) Institutes, III. iii. 10.

229) Institutes, III. iii. 14.

230)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회심(回心)을 전체적으로 “회개”란 말로 정의하며,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써 성립된다고 했다. Institutes, III. iii. 5.

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순결에 이르게 하시며, 그들이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²³¹⁾

이처럼 칼빈은 현세에서 성화의 완전성을 부인하였다. 그는 성화가 쉬지 않고 충동하는 육적 욕망을 부단히 소멸시키고 완전을 향한 진보는 촉구하지만, 완전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모습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완전한 성화를 향한 신자들의 노력까지도 부인한 것은 아니다.

(3).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론

칼빈의 성화론은 탁상공론(卓上空論)적이 아니며 실천적이고 전투적이다. 칼빈을 오해하는 사람은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 절대주권, 예정만을 강조하다가 인간적인 책임의 이론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노력, 책임도 외면하지 아니했다. 그의 신학의 정수를 기록한 『기독교 강요』를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도 그가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서 노력하라고 말하는 실천적인 신학자이다. 그 자신 스스로도 제네바에 온 후 1550년 이래 10년간 4000번 이상 설교하였고, 270회 결혼 주례, 50회 이상 세례를 행하였고 기타 강의, 회의, 상담 등 참으로 자신의 건강에 비해 늘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 하였다.²³²⁾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안토니 후크마는 “성화는 인간의 책임있는 참여가 수반되는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²³³⁾이라고 정의하였고, “성화는 신자의 노력

231) Institutes, III. iii. 9.

232) 윌리엄 부그마, 『칼빈』 이양호·박종숙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pp. 65-66.

233) 안토니 A. 후크마, pp. 315-316.

이 포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우리가 기록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더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된다.”²³⁴⁾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촉진시킬 수 있다(시 107:9).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논리적인 모순의 문제를 칼빈은 인간 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성경적인 방법을 택하였고,²³⁵⁾ 인간들 모두 하나님의 절대성에 복종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였다.²³⁶⁾ 칼빈은 성령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서 진지하게 찾으려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견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부정과 불결을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신다. 이와 같은 순종이 성립되려면, 저 사람들이 고삐를 늦추려고 하는 그 욕욕을 먼저 누르고 굴복시켜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성화되지만,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많은 죄와 무기력에 둘러 싸여 있다. 그래서 완전과는 아주 거리가 먼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며**, 죄 속에 얽혀 있으나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한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태만과 부주의를 떨어버리고 정신을 집중하여, 우리의 육의 전술에 부지불식간에 압도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²³⁷⁾

이처럼 칼빈은 성화를 일평생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투적 삶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지만, 전

234) Ibid, 333.

235) 에드윈 H. 팔마, 『칼빈주의 5대교리』 박일민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p. 149.

236) 케니스 래도레트, 『기독교회사(중권)』 윤두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p. 381.

237) Institutes, III. iii. 14.

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악을 유발시키는 불씨가 남아 있어서 죄 짓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계략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늘 깨어서 태만과 부주의를 떨치며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 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며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분투노력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에드가 영 멀린스는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인이 싸워야 할 상대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육이고, 둘째는 악한 영적세력이며, 셋째는 악한 영적세력이 작용하고 있는 세상이다.²³⁸⁾ 그러므로 칼빈은 매일 매일의 영적전투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을 더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며, 한층 더 강하게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가야 한다고 설교하였다.²³⁹⁾ 이상을 통해 우리는 칼빈의 성화론이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성화의 이유

라일(Ryle)은 “성화는 하나님의 예정의 확실하고 유일한 표시이다.”²⁴⁰⁾라

238) 에드가 영 멀린스, 『조직신학 원론』 권혁중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0), pp. 5-11.

239) 벤자민 팔리, 『칼빈의 십계명 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1), p. 417.

240) J. C. Ryle, *Holiness* (London: James Clarke, 1999), p. 18. 라일(Ryle)은 우리가 기록해야 할 이유는 8가지로 말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해야 한다. 둘째,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장엄한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유일하고 건전한 증거이기 때문이다(약 2:17). 넷째,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요 14:15, 21, 23; 15:14). 다섯째, 이것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 말했다. 라일(Ryle)의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화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예정의 관점**으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관한 예정은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은 신비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생활에 의해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벧전 1:2)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며”(롬 8:29),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예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경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화는 하나님의 예정의 확실하고 유일한 표시”²⁴¹⁾라는 라일(Ryle)의 말에 공감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죄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물론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는 어려우며, 겉으로 경건한 체하는 많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마음이 부패한 위선자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갈 5:22-23). 참 믿음은 항상 열매에 의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눅 6:44). 예수님께서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 전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성화란 분명 성경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예정을 통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유일하고 건전한 증거이기 때문이다(요 8:39, 42; 롬 8:14). 여섯째,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우리의 현재의 위로가 거룩함에 크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결코 하늘나라를 누릴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J. C. Ryle, pp. 39-42.

²⁴¹⁾ Ibid.

우리를 선택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성화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화의 이유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발견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²⁴²⁾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목가치한 것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화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를 우리의 "머리"(엡 4:15),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롬 8:29)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 편에서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으며(롬 11:17),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였다(갈 3:27). 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까지는 그가 가지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²⁴³⁾

여기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이란 성화를 포함한 모든 선한 유익을 말한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이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만** 우리와 결합하신다. 같은 영의 은혜와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

242) Institutes, III. i. 1.

243) Ibid.

스도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아래 두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²⁴⁴⁾고 하였다. 즉,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거룩한 교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성령께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므로 우리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모두 성령의 은혜의 열매인 것이다.²⁴⁵⁾ 이에 대해 칼빈은 요한일서 5:7-8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성령의 증거”란 말이 되풀이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 증거(성령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인(印)과 같이 새겨진 것으로 느끼며 그 결과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정화(淨化)와 희생(犧牲)을 우리 마음에 인(印)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신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다(벧전 1:2). 이런 말로써 베드로가 설명하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비밀리에 물을 뿌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신다는 것이다.**²⁴⁶⁾

이는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인(印)을 치시고 물을 뿌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시는 성화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2).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거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령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띠라고 말했다.²⁴⁷⁾ 이

244) Institutes, III. i. 3.

245) Ibid.

246) Ibid.

247) Ibid.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창막**을 만들게 하신 후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바울은 거룩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라고 책망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소라면 마땅히 거룩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거소가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칼빈 역시 주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거소로 성별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고 우리는 말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눅 3:16), 그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이 되도록 하신다(고후 5:17). 그리고 우리에게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깨끗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거소**로 성별 하신다(고전 3:16-17; 고후 6:16; 엡 2:21).²⁴⁸⁾

성령은 부패 덩어리인 인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²⁴⁹⁾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거룩한 백성들로 만든다. 즉, 성령은 전도자들의 복음 증거에 역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²⁵⁰⁾ 이처럼 성령의 감화 없이는 아무도 예

248) Institutes, III. i. 4.

249) 서철원, 『성령신학』, p. 170.

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전 12:3).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화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증생시킨 성령은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신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화가 진행되는 것이다.²⁵¹⁾ 칼빈은 진정한 신자라도 자기 힘으로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²⁵²⁾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칼빈은 성령의 내주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시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며, 죄를 거저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큰 자비와 연결되는데, 이 자비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며, 그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날로 더욱 더 죽이시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성결케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 **참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며,** 우리의 마음은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의 영광만을 증진시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원하게 된다.²⁵³⁾

이처럼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옛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 거룩하게 함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내주로 우리는 죄악을 벗어나며 거룩을 생각하며 육의 욕망들이 죄악임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칼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거취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²⁵⁴⁾ 그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250) Ibid, p. 173.

251) Ibid, p. 174.

252) Institutes, III. xiv. 9.

253) Ibid.

254) Ibid.

는 완전할 수 없다”²⁵⁵⁾고 단호히 말하였다. 성경 역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전 7:20)고 말씀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감화로 성별된 존재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엡 4:13).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주하실 거소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때에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 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그들을 **성전으로** 주께 바치게 하신다.²⁵⁶⁾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소’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제4절. 성화의 과정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고 성화의 삶을 촉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성화란 죄인으로 있을 때 가졌던 허물과 오염된 상태의 **옛 사람**에서 허물을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된 성도가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²⁵⁷⁾ **옛 사람을 축이고** 오염되지 않는 **새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255) Institutes, III. xiv. 10.

256) Institutes, III. iii. 9.

257) 갈 5:16.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진정한 성도의 삶이란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성화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화의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논자는 본 장에서 성화의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회개: 옛 사람을 죽임과 새 사람을 살림

칼빈은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²⁵⁸⁾고 함으로 ‘회개’가 성화의 과정임을 밝혔다. 그는 회개를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의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고 생각하였다.²⁵⁹⁾ 즉,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성화의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回心)을 전체적으로 회개란 말로 이해한 칼빈은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내가 회개의 좋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곧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轉向)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轉向)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 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

258) Institutes, III. iii. 1.

259) Institutes, III. iii. 3.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이라는 용어는 멜랑턴(Melanchthon)이 쓴 것이다. 칼빈은 멜랑턴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회개를 통한 “죽임”이란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된 때에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다음에 진정으로 자신을 싫어하며, 자신이 가련한 자, 멸망할 자인 것을 인정하며 교만이 꺾이며 낙담하여 떨며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것이 회개의 시초요 보통 “통회”(contrition)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회개를 통한 “살림”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으로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공포에 싸였던 사람이 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고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다.

써 성립된다.²⁶⁰⁾

회개에 대한 이와 같은 칼빈의 정의는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세우는 성화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칼빈은 회개가 “하나님께서 생활을 전향(轉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변모(變貌)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²⁶¹⁾ 칼빈의 말대로라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를 변모시키는 성화의 과정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칼빈은 “회개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²⁶²⁾고 말한 것이다.

칼빈은 회개를 통한 ‘죽임’과 ‘살림’의 과정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롬 6:6) 썩은 본성이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가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힘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를 한 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하는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²⁶³⁾

이와 같이 칼빈은 회개를 통해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 아담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주께서는 생명의 기

260) Institutes, III. iii. 5.

261)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의 성경구절을 들면서 논증하였다. 겔 18:31; 신 6:5; 10:12, 16; 30:2, 6, 10; 렘 4:1, 3-4; 24:7

262) Institutes, III. iii. 5-8.

263) Institutes, III. iii. 9. 여기서 칼빈은 중생에 의해서, 사람이 처음에 가졌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업을 받도록 양자로 삼으신 모든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다.²⁶⁴⁾ 그런데 그는 이 회복이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²⁶⁵⁾

하나님께서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때에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 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그들을 성전으로 주께 바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순결에 이르게 하시며, 그들이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²⁶⁶⁾

이처럼 칼빈은 ‘회개의 삶’이 바로 일평생 계속되는 성화의 길임을 분명히 하였다.

(2). 기도

칼빈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로 중심에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대해 많은 글을 썼다.²⁶⁷⁾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피력한 제3권 20장이 가장 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칼빈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도에 관한 이 장으로부터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특히 기도가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임을 배울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도구가 ‘기도’이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에 관한 장을 시작하면서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

264) Ibid.

265) Ibid.

266) Ibid.

267) 하워드 L.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94.

의 은혜를 받는다.”²⁶⁸⁾는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며 기도의 본질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교훈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게 하셔서(골 1:19; 요 1:16) 마치 우리가 넘쳐흐르는 샘물을 퍼내듯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든지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과, 그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 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²⁶⁹⁾

이상의 칼빈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믿음이 복음에서 나는 것과 같이,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다. 칼빈은 기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통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대해도 좋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다.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268) Institutes, III. xx. 1.

269) Institutes, III. xx. 1.

본 보화를 기도로 파낸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²⁷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 놓은 보화를 파내어 활용하는 길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그러기 때문에 칼빈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강조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여 칼빈의 예정론이 기도를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칼빈을 대단히 오해한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기도에 대한 반대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²⁷¹⁾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을 펴시어 그에게 속한 자들을 도우시되 다만 빈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 우리는 이를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행사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이다.²⁷²⁾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보혜사로 모셨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할 것이다. 서철원 박사는 “성령은 종말론적 선물이어서 영원히 계속될 선물이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임시적이어서 계속적으로

270) Ibid.

271) Institutes, III xx. 3. 칼빈은 “기도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라는 반대 의견에 대하여 기도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말했다.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불 일 듯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시 145:15-16).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여는 것이다.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72) 서철원, 『성령신학』, p. 185.

공급받아야 할 사항”²⁷³⁾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서철원 박사는 성령의 능력을 간만의 조수 현상에 비교하여 한번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²⁷⁴⁾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있어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좇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엡 4:3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좇아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공생애 동안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생활을 통하여 큰 능력을 행사하셨다.²⁷⁵⁾ 그분의 삶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받으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을까?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피조 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즉, 기도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셨다면, 한낱 미물은 우리가 더욱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을 행사하는 길은 기도뿐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걷는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옛 사람을 죽이고 육의 생활 체계를 끊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기도의 역사는 마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의 능력 받음으로 계속해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죄악을 떠남으로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²⁷⁶⁾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와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성화의 과정임이 분명하다. 기도는 믿음을

273) Ibid.

274) Ibid.

275) 마 14:24; 막 1:35; 6:46; 눅 6:12; 9:18, 28-29; 11:1; 18:11.

276) 서철원, 『성령신학』, pp. 187-188.

심화시켜 주며 성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잠재우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도록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²⁷⁷⁾

칼빈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옛 사람의 행실을 용서받고 육을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실 수 없다. 그러므로 시편의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자들이 이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²⁷⁸⁾

또한 칼빈은 “올바른 기도의 법칙”²⁷⁹⁾에 대해서 말함으로 기도가 바로 성화의 과정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다.²⁸⁰⁾ 기도의 교사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훈련되어야 한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배울 때에만 영적인 생활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살전 5:17; 빌 4:6).²⁸¹⁾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277) 하워드 L. 라이스, p. 101.

278) Institutes, III. xx. 9.

279) Institutes, III. xx. 4-16. 칼빈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칙: 경외(敬畏), 둘째법칙: 진심으로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셋째법칙: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빌라. 넷째 법칙: 확실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280) Institutes, III. xx. 5.

281) Institutes, III. xx. 6.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에 이르는 것이다.

(3). 말씀²⁸²⁾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말씀**에 매여 있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만일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²⁸³⁾라고 말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⁸⁴⁾

이처럼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러 왔다. 하워드 L. 라이스(Howard L. Rice)는 “개혁주의 경건은 영적 삶을 위한 자료이자 안내자인 성경에 대한 열심과 진지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진다.”²⁸⁵⁾고 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의해 지속적으로 교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 자신의 편견에 따라 방황하여 진리와 거짓의 구별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교사이신 성령을 피함으로써 바른 길로부터 상당

282) 물론 여기에서 ‘말씀’이란 특별계시인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283) Institutes, I. vi. 3.

284) Institutes, I. vi. 4.

285) 하워드 L. 라이스, p. 122.

히 빛나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자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한도 내에 신중히 머무르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²⁸⁶⁾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정 받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어떠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도 성경말씀에 의해 점검받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칼빈은 교회를 위한 성직의 의의를 설명하면서도 성직자의 말씀의 직무가 교회의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되고, 동시에 성도의 성화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요 기능이라고 가르쳤다.²⁸⁷⁾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말씀’이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중생과 그리스도의 몸의 세위짐을 목표로 하여 교회의 공적 집회에서 외형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의미한다. 칼빈은 “교회의 손을 빌려 신적으로 제공되는 신령한 양식 먹기를 게을리 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²⁸⁸⁾고 말함으로 말씀이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한낱 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²⁸⁹⁾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의해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한, 성경은 죽은 문장에 불과하며 말하자면 생명 없는 것이다”²⁹⁰⁾라고 주장하였다. 즉,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딤후 3:16). 칼빈은 시편주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286) Institutes, IV. viii. 11.

287) Institutes, IV. iii. 2.

288) Institutes, IV. i. 5.

289) 하워드 L. 라이스, p. 129.

290)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James 1:25.

하나님의 포도밭을 전정(田丁)하고 깨끗케 하며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방편이며, 누구든지 이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사랑에 의하여 육체의 유혹들을 극복 할 수 있게 된다.”²⁹¹⁾고 하였다.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4). 고난을 통하여 악을 버림

성도의 고난 역시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고난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악을 버리고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야 1:3). 칼빈은 이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자기 부정”²⁹²⁾과 “십자가를 지는 것”²⁹³⁾으로 표현하였다.

칼빈에 있어서 ‘자기 부정’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⁴⁾ 칼빈이 말하는 자기 부정은 내면과 환경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것은 내면적인 의지의 굴복뿐만 아니라 치욕스런 환란(患亂)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서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부정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욕정을 벗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⁵⁾ 성도는 이러한 기초 위에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

291) John Calvin, 『시편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p. 418.

292) Institutes, III vii.

293) Institutes, III viii.

294) Institutes, III vii. 2.

295) Institutes, III vii. 4-7.

용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일생의 주권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은 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지배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칼빈에 있어서 자기 부정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⁶⁾

이러한 자기 부정은 성화의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칼빈이 말하는 자기 부정은 성화의 훈련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성화된 자는 자기를 부정하게 되며, 자기를 부정하는 자는 성화를 이루게 된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면 그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자유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결국 성화의 훈련과 자기 부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은 죄악 치료의 수단이 되며, 필연적으로 성화의 훈련 도구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곧 모든 죄악의 길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각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자기 부정의 일부라고 말한다.²⁹⁷⁾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높으신 섭리와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를 연단시키시고 성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성도의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성화의 도구로 작용하는가?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인내력도 없을 것이므로 그들이 받

296) Institutes, III vii. 2.

297) Institutes, III viii. 1.

는 고난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또 십자가에 의해서 순종을 배운다. 자기의 경박한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²⁹⁸⁾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서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칼빈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성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칼빈에 의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지나간 죄들을 시정하여 합당한 순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다.²⁹⁹⁾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즉시 우리의 지나간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성도의 잘못과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 치료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성화의 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십자가를 질 때는 눈앞의 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또한 부활의 통로로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는 기쁨으로 대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성도의 영적인 진보는 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되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298) Institutes, III viii. 4.

299) Institutes, III viii. 6.

제5장. 성화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성화'에 있다고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화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성화의 가장 가까운 목적은 옛 사람을 완전히 벗고 새 사람을 온전히 입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완전한 구원은 이 세상의 생애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 단계 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해 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마지막 장에서 '성도의 최후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성화의 목적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³⁰⁰⁾ 이는 성경의 약속이기도 하다. 요한은 요일 3:2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출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했다. 이상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의 목적이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일까? 칼빈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는 것이 부활 소망에 힘을 준다.”³⁰¹⁾고 말하면서, “연합이 완전히 실현되어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³⁰²⁾라고까지 하였다. 서철원 박사는 칼빈의 이와 같은 견해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³⁰³⁾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자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300) Institutes, III xxv. 3.

301) Institutes, III xxv. 2.

302) Ibid.

303) 서철원, 『성령신학』, pp. 123-143.

하셨다.³⁰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사실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던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성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고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여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 하신 것이다.³⁰⁵⁾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여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에게 임하여 오사 내주하신다.³⁰⁶⁾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소,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고전 3:16; 고전 6:19).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고, 깨끗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하신다.”³⁰⁷⁾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거소가 완전하게 되는 길은 거룩하게 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³⁰⁸⁾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면서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이다(레 19:2). 바울은 이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였다(엡 2:22).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불가능하다. 칼빈은 “성령은

304) 서철원, 『하나님의 구속경륜』 (서울: 성문당, 1993), p. 21.

305) 서철원, 『성령신학』, p. 136.

306) Ibid, pp. 136-138.

307) Institutes, III i. 4.

308) 서철원, 『성령신학』, p. 139.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견되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부정과 불결을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신다.”³⁰⁹⁾고 말한다.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좇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정되고 선택되었다(엡 1:4-5). 이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9) Institutes, III iii. 14.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데로 성화(聖化, sanctification)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정(豫定, predestination)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예정 속해 있는 것으로 예정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 하신 목적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이 외에도 예정의 목적이 성화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다(엡 2:10; 살전 4:7; 5:23; 롬 8:29; 벧전 1:2; 딤후 2:4를 보라). 이상의 구절들은 예정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칼빈의 성화론 역시 예정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다. 이는 이미 우리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본 데로, 칼빈 자신이 예정의 큰 틀 안에서 성화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성화론은 예정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의 반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생각한다.³¹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지하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악한 의도와 불경건한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리라고 보시는 사람들을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결정하셨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그런 성향이나 능력을 미리 보고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예정을 말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비성경적임을 논증하였다. 만

310) Institutes, III. xxii. 1.

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면, 그 선택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닐 것이다. 칼빈은 야곱과 예서의 예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선택의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을 깨끗이 물리쳤다.³¹¹⁾ 칼빈은 선택의 목적이 택한 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이고,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라고 밝힌 다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선택되었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들어 분명하게 논증하였다.³¹²⁾ 물론 예정은 인간의 이성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진리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납득하면 성화의 길을 가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교리이다.

본 논문에 연구에 의하면, 예정론(豫定論)은 성화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풀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화론 역시 예정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정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논자는 본 논문에서 예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예정의 실천적인 면들을 살펴보았던 것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칼빈의 성화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중심의 성화론’이고, ‘일평생 계속되는 점진적인 성화론’이며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론’이다. 여기에 칼빈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라는 성화의 실제적인 원리를 말함으로 성경적 바른 성화론을 완성하였다. 그는 모든 논증을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에 의해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성화론을 개진(開進)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인간의 타락,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회복 등 균형 있는

311) Institutes, III. xxii. 5.

312) Institutes, III. xxii. 3.

신학의 체계 아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관점으로 성화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화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칼빈은 매우 정적이고 굳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실제로 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가 매우 역동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신학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그의 신학은 가슴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개혁하는 실천적인 신학이다. 그의 성화론 역시 마찬가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많은 저작물들에서 성도는 역사 속에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을 설파하고 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선택하신 우리를 향한 뜻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성화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성화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누렸고, 하나님께 사랑 받는 삶을 누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초체하고 초라한 모습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위기이다. 죄악의 문화가 암세포처럼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회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마저 죄악된 문화에 빠져 오염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가? 요즘 일부 대형교회들이 언론에 얻어터지고 있는 슬픈 현실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죄와 싸워야 할 거룩한 백성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의 책임일지 모른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성화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은 느슨해졌고, 결국 죄와 도덕적인 불감증으로 심각한 병이 들고 말았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보다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일반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실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화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며 성도들에게 성화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하였다. 기껏해야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권면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성화에 대한 바른 교리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에 거룩함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논자는 예정의 관점에서 본 칼빈(Calvin)의 성화론을 연구하여 성경적 성화에 대한 바른 교리를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관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구현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성자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과 교회들의 세속화가 교회의 영적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교회사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려되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세속화를 반성하고,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며 교회마다 성화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교회는 새롭게 회복되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영문

-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II. xxi. 1. ed. John T. McNEILL,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ume XX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and ed.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1 Thessalonians.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and ed.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Ephesians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and ed.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1 Timothy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and ed.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James.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trans. and ed.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John.
-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 James Anderson, vol. Edinburgh: Printed for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M.DCCC.XLV, Psalms.
- Chul-Ha, Han "Theology of Ministry in John Calvin", ACTS. Theological Journal, Vol. 4. Seoul: Asia United Theological College, 1991.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3 vols. London: Thomas Nelson, 1872.

Ryle, J. C. *Holiness* London: James Clarke, 1999.

번역서

Battles, Ford Lewis. 『칼빈의 기독교강요 분석』 양건·강명희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국, 1983.

Berkhof, Louis. 『조직신학』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9.

Calvin, John. 『시편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Calvin, John. 『에베소서 주석』 존 칼빈 성격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Murray, John. 『구속론』 허문호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Norman L. Geisler and Ralph E. MacKenzie,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은성 역 서울: 그리심, 2003.

Wallace, Ronald S.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웨스트민스터 신앙규범서』 박창호 역 서울: 도서출판 푸른초장, 1997.

래드, G.E. 『신약신학』 신성종·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로레인 비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홍의표·김남식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90.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리차드, J. 『칼빈의 영성』 이창우 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6.

마르틴 루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조주석 역 서울: 나침판사, 1993.

- 마카리우스, 『신령한 설교』 이후정 역 서울: 은성, 1993.
- 멜빈 디이터외 4인 공저,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중 안토니 후크
마의 “개혁주의 입장” 김원주 역 서울: IVP, 1993.
- 벤자민 팔리, 『칼빈의 십계명 설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본회퍼, 『나를 따르라』 허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브라이언 채플, 『성화의 은혜』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에드가 영 멀런스, 『조직신학원론』 권혁봉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87.
- 에드윈 H. 팔마, 『칼빈주의 5대교리』 박일민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윌리엄 부그마, 『칼빈』 이양호·박종숙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 장 칼뱅, 『칼뱅의 에베소서 설교(상)』 배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제임스 패커, 『성령을 아는 지식』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03.
- 존 맥아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존 레이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 존 칼빈, 『칼빈의 예정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
협회, 1992.
- 찰스 콜슨·낸시 피어시,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영만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 케니스 래도레트, 『기독교회사(중권)』 윤두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하워드 L.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국문

- 김광렬, 『구원과 성화』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 김문희, “웨슬리 성화론” 『복음주의 총서』 서울: 웨슬리복음주의협의회, 1992.
- 김홍기, 이후정, 임승안, 권희순 공저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 박건택, 『칼뱅의 자유론』 서울: 솔로몬, 2003.
- 서철원, 『성령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3.
- 서철원, 『하나님의 구속경륜』 서울: 성문당, 1993.
-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6.
- 최홍석, 『사람이 무엇이관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4.
- 한완상,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기독교 출판사, 1984)

기타

- 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1998)
-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 『복음과 신학』 통권 제1호. 1996. 2.
- 이수영, “칼뱅 신학의 몇 가지 기본적 관점” 『장신논단』 1985 창간호.
- 한철하, “칼빈의 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성경과 신학』 제 15권 1994.

ABSTRACT

Calvin's Sanctification Theory from Predestination Perspective

Young Suk Jung
The Department of Theology
Ch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o comprehend "Sanctification", perspective predestination must be considered, because providence of sanctification is the primary goal of predestination. Apostle Paul teaches, how God choose us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Eph 1:4-5). "To live a holy and blameless life" is God's pleasing will, and is rather living in a holy life, not surrendering it. It is partially incomprehensible for our human's reasoning, but by faith, what christian doctrine that leads us to sanctification in God's mercy can be convinced.

Predestination is a puzzle of truth, which can be solved in the conception of develope sanctification. In likeness, sanctification can be explained in the view of predestination. Today, many christians are lead into secularism, wrong conceptions of salvation or unconcern at sanctification which may result in depraved life, when lack of mortal pious

implication applies into predestination theory. It's the problem of today's christianity sanctification, undeniable spiritual crisis to christian's unholy living, and the secularization of churches which had been taught by the church history. Therefore, a correct view of sanctification, reform application, and repentance are essential issues in today's secularized churches and for the care of christian's holy living.

Calvin analyzed "sanctification" into 5 categories.

- (1) The doctrine of election makes God a tyrant.
- (2) The doctrine of election takes guilt and responsibility away from man.
- (3) The doctrine of election leads to the view that God shows partiality toward persons.
- (4) The doctrine of election destroys all zeal for an upright life.
- (5) The doctrine of election makes all admonitions meaningless.

Frankly, these misapprehensions arose from the misconceptions of philosophical specular approach, rather than the scriptural approach. When predestination is misunderstood as fatalism, human can easily surrender themselves, assuming, elected or not elected beings. The fatalism leads a result of hindrance holy living. The fatalism and predestination are originally different. Because the fatalism can't tolerate personal God. Predestination had been made for the events to take place by our holy, infinitely wise and powerful God. On the other side, fatalism is, all the events which were caused by the physical inevitability, indistinct from God's reckless ignorant influence of unethical depersonalization. When predestination is correctly apprehended in biblical views, it's practical doctrine can easily be known. For Calvi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does not only glorify God, but it supports assurance of salvation, humbleness and practical comfort as well. He also believed providence of sanctification is the primary goal of predestination, therefore, it supports saint's diligency.

Calvin clearly defined sanctification to be the primary goal of predestination. This theory was recorded many areas in the bible clearly. Especially, when Calvin was preaching in Ephesus, he taught that the sanctification is the primary goal of predestination. Calvin taught the stage of salvation in predestination and profound relationship between predestination and sanctification. This theological term known as "ordo salutis", had been found relevancy with sanctification, and understood as wholly and solid point of view by Calvin.

The motivation on sanctification attempts to connect us into the life in Christ, said Calvin. Which means, the connection in Christ, mysteriously sanctifies us, and obviously, this will lead us into the holy living. Also, through the binding in Christ by the spirit, and the connection in the life of Christ, and by living in His dwelling place, will definitely ground us into His holiness. Calvin commented the stage of sanctification by repentance, prayers, His word, and suffering. By Calvin, we struggle to restrain our old nature but marching onto our renewed life everyday. And by the prayers, we put an end to our old nature, refrain from flesh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ecoming saints. Most of all, Calvin made an emphasis in the word. He said that the duty of the word in church will empower the regulations and the unities in the church, and at the same time, by the word, saints will be sanctified, which is the gift of God and ability. At last, Calvin mentioned, suffering in Christ is the

procedure of sanctification for Christians cores in Christ, which can be describe as "denying ourselves" and "carrying the cross".

Calvin did not mention clearly about the purpose of sanctification, but he clearly mentioned, perfect connection in Christ is the purpose of sanctification, which can be identified as to prepare God's abundant dwelling place. Through the unification with Christ, to those walking in sanctification, eventually,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en His kingdom is completed, the perfect unification will be known to us. And by the perfect dwelling in Christ, the glory of God will fill in our holy temple.

Calvin's definition of unifying with Christ is the unification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To Calvin, what spirit's dwelling is, the Christ dwelling in us. By believing in Jesus as our Lord and saviour, He will dwell in us. Therefore, we start from the faith, toward the unification with Christ. Calvin's reference to Eph 1:4-5, attempts to connect our eternal unification with Christ, before the world's existence. Farther more, without His unification, we are unable to walk in righteousness, and this is the evidence to know walking in sanctified life is to be united with Christ.

The characteristics of Calvin's doctrine of sanctification are "God centered sanctification by the grace of God", "life long proceeding sanctification", and "practical and conflicted sanctification". Here Calvin's "unification with Christ", tells the true facts about the sanctification principles in biblical views. The whole Calvin's facts didn't depend on the means of human's experiences or the reasons. He stood on the truth, based on what was teaching in the bible, with his own sanctification

statements. That's why, his view of sanctification was not indeed human center perspectives, but God centered perspectives.

Calvin's sanctification theory offers clear purposes of christianity in korean churches. The whole purpose of christianity was just to receive eternal life by believing in Jesus. So to speak, the life after acceptance wasn't the major concern. But for Calvin, he clearly demonstrated God's predestination leading us into the sanctification, must be applied to korean churches. Until now, Korean churches weren't aware of sanctification or systematic teachings to their church members. Only by the limitation from the sermon, the pastors encouraged sanctification to their church members. Because of discernments, korean churches couldn't reflect God's holiness into the community. Therefore, Korean churches must educate Calvin's sanctification, from redemption of Christ, to justification of the doctrines.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must be instructed properly to the members.

Through Calvin, the proper doctrine of sanctification has been standing firm. Obviously, the church should put on effort to establish biblical sanctification rather than the theological approaches and researches.